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맑고 아름다운
2010. 3
통권 203호
사람들



2010학년도

법왕사 불교대학·경전반 신입생 모집

불교대학

1. 교육안내

교육과정 | 1학년 2학기제(3월 12일 개강)

교육내용

1학기 - 불교입문, 불교사의 이해

2학기 - 예불문과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 특전 | 조계종 종단에서 실시 하는 포교사
고시 응시자격 부여(졸업생에 한함),
매학기 성적우수 및 신행봉사 관련
포상

※ 졸업필수조건 | 출석 80% 이상(매 학기)

2. 강의시간

3기 신입생 | 주간: 금요일 오후 2시

야간: 금요일 오후 7시

3.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 사찰에서 실시하는 기본
교육 이수자 및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대학 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대학등록금 | 입학금 3만원(교재비 포함)

경전반

1. 교육안내

교육과정 | 3월 17일 개강

교육내용 | 유마경

2. 강의시간

주간 | 수요일 오후 2시

강주 | 대한민국 최고의 유불선 대강백
원조 각성크스님

3. 입시요강

응시자격 | 조계종사찰 신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

조계종 신도증 사본 1부

반명함판 사진 2매

경전반등록금 | 월 2만원 (교재비별도)

접수기간 | 2010년 3월 16일까지

접수방법 | 법왕사 종무소 방문접수

문의: T. 766-3747, 766-3742

www.bubwangsa.or.kr

할인대상(대학·경전반 동일)

- 가족할인
- 국가유공자
- 장애인(3급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고령자(65세이상·1946년 이전 출생자)
- 재입학자(포교원 인가 불교대학 졸업자)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www.bubwangsa.or.kr

2010. 3
통권 203호



Contents

04 깨침의 향기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본원스님

20 사찰순례

천축산 불영사

24 마음의 여유

무슨 흔적이 남았을까 - 최재목

26 재미있는 불교설화

신비로운 법당

30 알아봅시다

수미단 - 불교의 우주관을 표현해 놓은 불단

34 그곳에 가고싶다

괴시리 전통마을

38 생활속의 기도법

영가 천도 기도법 2

42 부처님의 생애 - 팔상성도

46 신간서적

기억에 남는 명법문
선 객

48 웰빙푸드

쑥개떡
쑥 칼국수

50 만화 불교이야기

승랑·원축·혜초·도의 1

52 지상갤러리

화사한 봄빛을 담은 라넌콜러스 예쁘게 꽃기

54 법왕사 소식

62 법왕사 게시판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더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통권 203호 불기 2554(2010)년 3월 5일 발행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종무소 T.053) 766-3747 · 9088 F.053) 767-6095 기 획 회주 · 정무스님 발행인 실상스님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편집위원 영일, 모도, 정명, 권기철 취재기자 박학순 디자인 정미림 기획·제작 도서출판 풍경소리 053) 424-0144

조계종 대종사 정무 큰스님



“우리는 온 천지의
은혜로 태어났다.”

새벽에 눈을 뜹니다.

기지개를 켜고 숨을 크게 들이킵니다. 호흡, 향긋한 바람결이 느껴집니다. 살아있구나! 참으로 기적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생명이 호흡시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숨 한 번 들이셨다가 내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이 공기의 은혜로 우리는 숨을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기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드러운 바람결을 타고 산새들이 노래하는 소리,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립니

다. “아! 좋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산새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숲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시원합니다. 행복한 느낌이 가슴 깊이 밀려듭니다. 물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벽예불을 드리면서 우리의 본사이신 석가모니 부처님, 공기 부처님, 물 부처님, 산새 부처님, 나무 부처님, 꽃 부처님, 돌 부처님, 쌀 부처님, 아기 부처님, 도반 부처님, 상좌 부처님, 공양주 부처님 등 온 천지의 부처님들께 정성껏 예경을 올립니다. 삼라만상의 모든 부처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보냅니다.

잠시 좌선에 듭니다. 지극한 행복감... 수행은 다음 생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전생의 업을 닦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수행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궁극적인 행복(니르바나, 열반)을 체



We Were Born in the Blessing of the Whole World.

At dawn I get up. I stretch myself and breathe in deeply. The early morning wind brings a sweet, fragrant smell to my nostrils. I feel I am alive! It's really like a miracle. The Buddha said that life lies between breaths. That's true. If we do not breathe in and breathe out, we die. Thanks to the air we can breathe and live. I give my thanks to the Air Buddha.

The soft breeze brings a chirping of mountain birds and the sound of flowing water in the valley. "Oh, Great!" My exclamations of gratitude come out spontaneously. I give my thanks to the Mountain Bird Buddha. I give my thanks to the Forest Buddha. I drink a glass of water. How refreshed I feel! I feel happy deep in my heart. I give thanks to the Water Buddha.

During the early morning's worship, I pay homage with my whole heart to all the Buddhas in the Universe, including Sakyamuni Buddha, founder of Buddhism, Air Buddha, Water Buddha, Mountain Bird Buddha, Tree Buddha, Flower Buddha, Stone Buddha, Rice Buddha, Child Buddha, Comrade Monk Buddha, Senior Monk Buddha, and Cook Buddha. I give my thanks to all the Buddhas in the Universe.

For a moment I sit in meditation. Utmost happiness surrounds me. Spiritual practice is not for the next life, nor for the extinction of the karma accumulated in the former lives. It is just for the experience of the ultimate happiness (nirvana) of this present moment. No, we are originally happy. Although we are extremely happy equipped with the capability of the Buddha, we just do not realize and feel that we are such a happy being because the valve of Enlightenment didn't open.

Spiritual practice is just a discipline to open the valve of Enlightenment. If you make it a rule to do the spiritual practice everyday, the moment of Enlightenment must come. Of course, seemingly there is no great difference from the former times even if you attain Enlightenment. The enlightened one and the unenlightened one are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If there is any difference, the enlightened one

득하기 위함입니다. 아니 본래로 인간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처의 능력을 간직하고 있는 지극히 행복한 존재인데, 깨달음의 밸브가 열리지 않아 그것을 다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수행은 바로 그 깨달음의 밸브를 여는 작업입니다. 수행을 습관화시켜 몸과 마음에 배면 어느 순간 밸브가 열립니다. 깨침의 순간이 옵니다. 물론 깨치고 나서도 겉으로 보기에 이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깨친 자와 깨치지 못한 자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제야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 모든 중생에게 다 부처의 씨앗이 있다 해도 진짜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에게, 저 난폭한 사람에게, 저 형편없는 사람에게, 나같이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에게 무슨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거야.’라고 늘 인간을 폄하하던 마음의 습관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 니르바나의 경지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으로 병이 생기듯 잘못된 마음의 습관이 큰 병통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시작한 것도 막상 습이 들어버리면 끊기 힘듭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린 습관은 더더욱 무섭습니다. 한번 어떤 방향으로 생각이 고정되어버리면 그 생각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길들여온 것이기에 하루 아침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마음과 육체는 하나이기에 마음 따라 육체도 병이 듭니다. 고혈압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자세히 보면 성격이 급하고 직선적입니다. 아집이 강한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에 마찰이 심하고 혈압까지 높아진 것입니다. 성격도 습관입니다. 생각하는 습관이 그대로 성격을 형성한 것입니다. 자신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타고난 성격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이것이다, 원래 그렇다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번뇌도 마음에서 나오고 깨달음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부터 조사스님들께서 “번뇌가 곧 깨달음”이라 하였고, “한마음 돌리니 삼계가 열반(니르바나, 번뇌의 불길이 꺼진 궁극의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 한 마음 돌리기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이 사회 전체 대중이 사고방식과 생각하는 습관의 방향을 아주 조금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can now understand the words of the Buddha as they really are.

The Buddha said that all living beings have the seed of the Buddha-nature. But few people do really believe this word. It's because people are habitually accustomed to derogating the human value by saying 'How can you expect the Buddha-nature from such a silly person, from such a violent person, from such a poor person, and from such a weak and idle person like me!' So the true happiness, nirvana didn't come.

Just as wrong eating habits develop diseases, so the wrong habits of mind cause great problems. At first you can do something just for fun, but once you are habituated to it, it is difficult to get rid of the habit. Especially the ingrained habit is far more fearful. Once your thought is fixed in one direction, it is never easy to change the direction of the thought. Since your way of thinking has been steadily formed from the early childhood, there is no way to change it overnight.

Since the mind and the body are one, if the mind is sick, the body is also sick. If you look into the persons suffering from hypertension, you can easily know that they are hot-tempered and straightforward. Their strong self-assertive character causes great frictions in human relations and resultantly high blood pressure. Character is a habit, too. Thinking habit, as it were, forms character. Though they know there is a problem with their character, they do not care. They say that it can't be helped because their character is bred in the bone.

But that is a wrong way of thinking, too. Originally mind is not a fixed substance we can call this or that. Mental afflictions stem from the mind and so does the Enlightenment. So the old Zen Masters said that "afflictions are just Enlightenment," and "Once one mind is changed, the three worlds are just nirvana (the ultimate happiness in which the flames of afflictions are extinguished)." Of course, it is not so easy to change one mind.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we can clearly see how hard it is for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for an individual to change even a little the direction of their way of thinking and their thinking habit.

Enlightenment is not a certain particular spiritual and physical phenomenon. The problem lies only in the wrong way of thinking to which we are habituated from birth. That I exist as an entity is an example of the wrong way of thinking. Three poisons, that is, desire, anger and stupidity are the most wrong way of thinking. So we have to get out of our attachment to such an unreal 'I' and the way of thinking that we are unenlightened living beings. But we have to realize that if we have the power to make afflictions we also have the power to attain Enlightenment. Just look



깨달음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정신적 육체적 현상이 아닙니다. 다만 태어나면서부터 습관 들여온 잘못된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내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심이 가장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렇듯 허망한 나에 집착하여 허우적대는 중생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번뇌를 지어낼 능력이 있다면 깨달음도 지어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번뇌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처의 작용이 아니면 번뇌란 어렵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 속의 작은 행복부터 니르바나라는 궁극의 행복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평소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행복해지는 습관이 몸에 배어야 합니다.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알고, 문화생활도 누리본 사람이 누리듯이 행복도 습관화시키지 않으면 느끼지 못합니다. 평소 웃지 않는 사람은 웃어야 할 상황에서 웃지도 못하듯이, 고무줄을 당겼다 놓으면 다시 제 자리를 찾아가듯이 행복이 와도 못 느낍니다. 행복한 상황이 오히려 어색해서 슬쩍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곤 또 우울해 합니다.

행복을 생각하고 행복해지는 습관이 배어야 행복이 끌어당겨집니다. 내가 행복해야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들고, 주위사람들도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행복해지는 습관으로 과감하게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이대로 완전함, 내 인생의 모든 일이 나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진행되고 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 나는 곧 보살입니다.”라고 하여 자기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하면 좋습니다.

“기분이야 좋은 말든 기분 좋다 생각하고 기분 좋게 활동하자, 건강이야 어떻든지 건강하다 생각하고 건강하게 생활하자, 행복이야 하든 말든 행복하다 생각하고 행복하게 봉사하자.”는 구절을 늘 새기고 좋은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의 뇌는 일어난 사실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입력합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가짜 약을 투여하면서 진짜 약이라고 하면 환자의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때문에 병이 낫는 플라시보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사실보다 주관적인 해석이 더 중요합니다. 긍정암시가 충만한 생활을 하면 언제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 어떤 영양제나 보약보다 심신에 이로운 것이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입니다. 민들레 흩씨처럼 주위에 좋은 생각을, 행복을 퍼뜨리십시오. 나도 행복해지고 이웃도 행복해집니다.

at the afflictions. How surprising they are! Without the function of the Buddha, afflictions are impossible.


The same is true of happiness. If we really want to be happy from a small happiness of our daily lives to the ultimate happiness, nirvana, we have to do practice everyday to be happy. We have to acquire the habit of being happy. Just as those who has eaten the food know the taste of the food, and those who has enjoyed culture appreciate culture, if we are not accustomed to being happy we do not feel happy. Just as those who do not usually laugh cannot laugh in a place where they should laugh, and just as when a rubber band is stretched and let go of, it returns to its original place, those who don't get the habit of being happy cannot feel happy even at a happy situation. These people would rather try to avoid the happy situation because it will be awkward. And they are harassed by depression.

Happiness comes to us when we think about happiness and we get the habit of being happy. When I am happy, happy people flock to me and all the surrounding people are happy, too. Now we resolutely have to change our habit into the habit of being happy. What should we do?

Positive self-suggestion would be a good way. For example, you can say that "I am complete just as I am. Everything in my life proceeds to my ultimate goal. I am a loved one and I am just a Bodhisattva."

Always keep these words in your mind and embrace a happy frame of mind: "Whether you feel better or not, always think that you feel better and live in a happy frame of mind. Whether you are healthy or not, always think that you are healthy and live in a happy frame of mind. Whether you are happy or not, always think that you are happy and live by helping others in a happy frame of mind."

We input our thoughts, not the fact, into our brain. Just as in a placebo effect, though a doctor administers a quack medicine to a patient by saying that it is a good one, the patient is cured of by his strong belief that he will be better. And there is a saying that interpretation of the dream is better than the dream, isn't there? Subjective interpretation is far more important than objective fact. If you lead a life full of positive self-suggestions, you will always be happy. What is more beneficial to the body and mind than nutritional supplements and a pack of restorative herb medicine is a happy thought, a happy frame of mind. Spread the seeds of happiness around you just like the dandelions spread their seeds. Then I will be happy and my neighbors will be happy too.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만인의 노고가 담겨있습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유지하여
모든 중생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공양계송)

절에서는 공양(식사)을 할 때 위와 같이 공양계송을 합니다. 우리는 온 천지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밥만 하더라도 공기, 물, 흙, 퇴비, 종자, 농부, 상인, 배달업자, 유통업자, 음식 만드는 이 등 수많은 인연들의 은혜 덕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자연과 사람 등 천지 만물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사실 모든 만물의 은혜를 관념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체득하면 그 깊이가 다르겠지요. 우리가 염불하고 참선하고, 108배 등 수행을 하는 것은 이렇듯 은혜를 알고, 궁극적인 행복을 얻기 위함입니다.

감사한 마음, 고맙다는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스스로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해지니 만나는 사람마다 귀인이 됩니다. 천지사방에 도와주는 사람뿐입니다. 세상만사가 감사한 일뿐입니다. 고마운 일에만 감사할 게 아니라 역경이 닥쳤을 때, 나쁜 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시시콜콜 따질 게 아닙니다. 그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로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마음이짐으로 받아들이면 전화위복이 됩니다. 이렇듯 매사 고마워하는 마음이 습관화되면 있는 자리 그대로가 극락이요, 천당입니다.

행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 또한 꾸준히 준비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으며 온 천지의 은혜로 태어나고 성장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천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부처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를 갚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습관이 뿔속 깊이 스며듭니다.

행복해지는 습관이 배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고 행복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진심으로 고마우니 행복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의 미소를 전합니다. 상대방도 행복해집니다. 서로 서로 행복합니다. 이렇듯 은혜를 알고 은혜 갚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는 습관의 비밀 열쇠입니다.



“Even a drop of water is imbued with the grace of nature.

Even a grain of corn is impregnated with the labors of all the people.

By eating this food and keeping health,

I will help all the living beings.

Namo Sakyamuni Buddha” (A chant at me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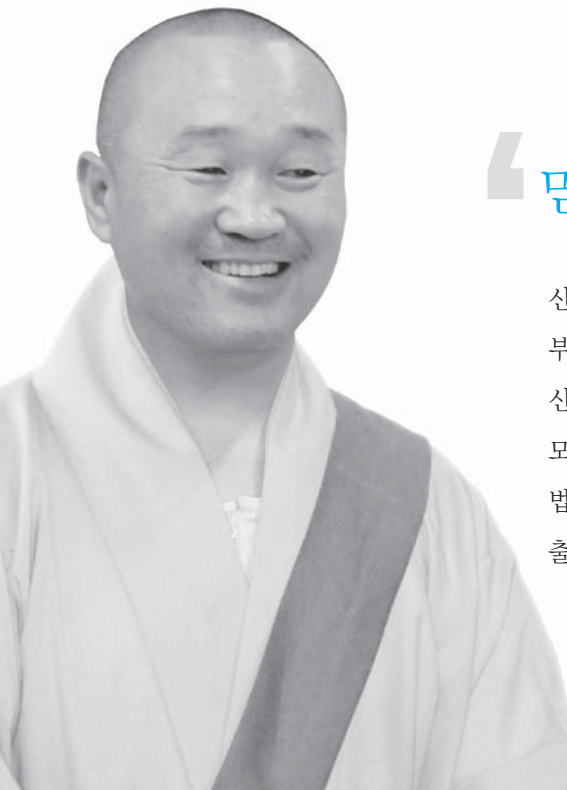
When the meals are served in the temple, the above hymn is chanted. We were born in the blessing of the whole Universe. Just look at the rice food. We can eat it thanks to the various numbers of causes and conditions like air, water, earth, compost, seed, farmer, merchant, deliveryman, distributor, cook, etc. Whenever I eat some food, I am very grateful because I feel that I live through the favor of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including nature and people. And I vow to return the favor. In fact, we can see theoretically that we are indebted to all the things in the Universe. But if we experience it through the spiritual practice, the quality would be different. It is all for realizing our indebtedness and attaining the ultimate happiness that we devote ourselves to spiritual practices like chanting, meditation and doing 108 prostrations.

People who frequently use the words, “Thank you.” are themselves happy and also make others happy. Everyone they meet become a nobleman. Looking around every direction of the world, they can only find helpful people. All they can do is to be grateful to everything in the world. Not only do they appreciate kind things, but also they feel grateful even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adversity, bad things or unfairness, not inquisitive about the matter. If we accept the difficult situation with a grateful mind, thinking like ‘It is a chance to improve myself. What a grateful thing it is,’ a misfortune may turn into a blessing. Like this, when the grateful mind for everything is established into a habit, the place where you are now is a paradise and heaven.

One day happiness doesn’t come to visit you suddenly. It is for those who have steadily prepared for it. Everyday we eat meals, but we have to realize that we were born and grow up in the blessing of the whole world. Also we should be grateful to a number of the Buddhas scattered around the whole world and try to return the favor. If we do so, the habit of being happy will be rooted deep into the bone.

If we acquire the habit of being happy, the fact that we are just alive is like a miracle and happiness. As everything in the world is truly grateful, you will never lose a happy smile. You convey the smile of happiness to whomever you meet. Your partner will be happy. All will be happy. Consequently, if we are grateful to everything and try to return the favor, it is the key to the habit of being happy.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



“**믿음이 굳건해야...**”

신심이란 무엇인가?

부처님도 여러 스님들도 한결같이

신심을 강조하셨다.

모든 수행은 신심으로부터 최상의

법을 증득하는 일도 신(信)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화엄경에 이르기를

믿음은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모체이며

모든 좋은 법을 길러낸다.

믿음은 능히 슬기로움의 공덕을 더 늘릴 수 있다.

신심으로는 반드시 여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고 하신 말씀이 나온다. 즉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에 살고자 하는 이는 믿음이 그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된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원하는 모든 공덕의 모체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어려움이 없기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다. 그것은 믿음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자. 철없는 아이 때 여러분은 누구를 믿었는가? 당연히 부모님일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절대적인 믿음의 귀의처이며, 아버지는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의 존재였을 것이다. 그렇게 부모님을 믿음으로써 어린 아이는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슬기로움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어떤가? 초등학교에만 가도 선생님을 믿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예전에는 선생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인 진리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 않는가. 어린 학생들조차 권력이나 돈을 믿는 시대이다.

물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그런 것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믿었던 권력도 사실상 하루 아침의 이슬처럼 보잘 것 없는 것이 되고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던 돈의 힘도 저녁 연기처럼 사라지기가 일쑤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믿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한번 믿으면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절망시키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이 화재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 가득한 매연에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바로 가장 먼저 두려움이 앞설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것이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 기쁨을 느낄 것이고 공기의 고마움도 느낄 것이다. 신선한 공기가 없으면 살수가 없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내 주변의 모든 것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신심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공기가 생명의 원천이며 나의 육신을 살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을 살게 하는 힘도 늘 새롭게 깨어나게 하고 지친 몸을 다시 추스르게 하는 힘이 바로 신심이다. 화재 현장에서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심이다.

며칠전 우리 법왕사 불교대학의 1기 수료식이 있었다. 항상 바쁜 일상을 살지만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마음을 내었기에 부처님의 큰 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라는 말이 있듯이 시작이 중요한 것이다. 그들에게 한가지 당부의 말을 한다면 처음의 내었던 그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것이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숨이 물을 빨아 들이 듯이 모든 것을 배워 나간다. 그것은 아이의 마음은 새하얀 백지장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심도 마찬가지다. 처음 마음을 내었을 때의 그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산을 오를 때 중도에 포기할 지 몰라도 처음은 항상 산의 정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시작하는 마음은 항상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시작하는 처음부터 의심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이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배움의 기회도 더불어 가지길 여러 신도님들께 권고한다.

용수보살의 『지도론(智度論)』에는 신해행증(信解行證)을 들어

믿음만 있고 아는 바가 없으면 무명만 더하고

알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사견만 더하니

믿음과 아는 것이 겸하여야만 비로소

모든 올바른 행위의 근본이 된다.

라고 하였으니 이 내용은 첫째로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믿거든 바로 알아야 하고
알면 반드시 실천해야만 깨달음의 세계가 거기 있다는 것을 간단히 말해주는 가르침이다.
신심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신심이 성숙하지 못한다. 성숙되지 못한 신심은 외적(外的)인
계기를 만나면 곧 사라지고 마는 것이므로 완전한 덕을 실천해야 비로소 신심이 완전해
지는 것이다. 그러한 신심이 발휘되었을 때 완전한 덕인 베푸는 일, 나누는 일, 윤리적인
생활, 참고 용서하는 일, 부지런히 노력하는 생활,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신을 살
피는 생활까지 완전한 경지에 도달하는 시발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심의 힘인 것이다.

법왕사 가족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새로운 마
음으로 신심을 더욱 확고히 하시는 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 된다.

마음은 주(主)가 되어

모든 일을 시키나니

마음 속에 착한 일 생각하면

그 말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라.

- 법구경 중 -



본원 스님

- 토굴 정진중



그림자 형상을 따르고, 메아리가 소리를 쫓듯이

옛말 하나 그르지 않다고 하는데,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잠 못 이룬다” 하였다.

여기서 제기 되는 문제는, 우리가 그 만큼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와 국민이 되어야 할 텐데, 결코 그렇지만은 못한 까닭이 무엇이나는 의문을 가지게 되고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이 문제를 두고서 그 답은 보다 분명해진다.

우리의 경우는 단지 슬한 외침을 당했을 뿐, 침략전쟁을 하지 않았을 따름이지, 한반도권의 지리적 환경, 역사, 문화, 지정학적 위치 등에 따른 영향 탓으로 안으로는 늘 깊은 생채기로 앓고 있다.

봉건주의 시대, 이 땅에 토착화 되다 시피한 지배계급의 수탈과 착취, 오백 년 반상제도에 따른 골수에 맺힌 한, 행방 이후 열강들의 농간으로 갈라진 국토와 이해관계를 쫓은 정치권력이 만민특위(친일 청산 기구)를 해산시킨 까닭에 이제껏 바로 세우지 못하는 민족정기, 벼슬자리나 탐

하는 무능·부패한 위정자들의 거듭된 실정, 분단 60년 세월이 흐르고도 그 끝이 안 보이는 가운데, 지역 간 여전히 반목하고, 계층 간 위화감이 더하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간의 불신의 골을 더욱 조장시키는 우리사회 해묵은 병리형상의 악순환은 고리와 사슬 같이 묶인 관계로써, 근대사만 보더라도 일제의 강제징용·징병·성적노리개로 즐겨가 한 많은 죽음을 당한 이들, 피를 뿌리는 극단적 좌·우익 싸움에 휘말려 숨겨간 이들, 보드연맹(이적행위)에 연루되어 무참히 죽임을 당한 이들, 그리고 6·25 동족상잔으로 6백만명이 죽어갔고, 여기에 빨치산 토벌로 산하를 피로 물들이며, 무고한 양민학살과 4·19 학생들의 죽음, 광주항쟁으로 숨겨간 이들을 하며, 중세 왕정시대에나 있음직한 79년 10·26사태와 최근 들어선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사고 유형이라는 95년 삼품백화점 붕괴, 03년 대구지하철 방화, 06년 연천 GP사병 총기난사, 07년

최악의 총기 난사로 기록되는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참사 등 우리를 낮 뜨겁게 하는 이러한 사건·사고로 얼룩짐과, 것처럼 한(恨)을 품고 억울하게 당한 죽음 사이에는 어떤 형태로든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연기법적 인과의 관점인 반면, 그 진실을 볼 수 없는 게 지식·학문의 맹점이자 한계다.

한인에 의해 저질러진 버지니아 공대 참사 충격이 세계인의 이목을 끄는 가운데, 우리의 참단한 자괴심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민족의 얼굴이자 자긍심으로 여기는 문화유산인 자국의 국보 문화재 1호를 훔침에 불 질러 전소시키면서 또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하면서 ‘한국인의 심성을 연구해볼 일’이라는 외신보도까지 있었다.

아마도 이런 예는 일찍이 어느 나라에서도 없었던 일로써 황당함을 넘어 할 말을 잇게 만들며, 작은 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국제사회 화제 거리로 다뤄진다는 보도에, 정말이지 우리는 입이 열 개라도 입을 닫아야 할 만큼 공범의식이 갖는 치부(恥部)를 느껴야 했다.

08년 관계자료 현황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자살자 세계 1위(50여 명)에 여전히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지 못하며, 경제 규모 11위, 교육경쟁력 56위, 국민소득(GNP) 2만 달러이면서도 정작 행복지수(GNH)는 바닥권을 밀돈다.

한편 악의 축(軸)으로 지탄 받는 북한의 경우는 지구상 유일의 독재 세습체제하에 국제사회의 도움 없이는 못사는 최빈

국으로 전락하면서도 군부의 실세와 당 간부들은 호의호식으로 하나 같이 배가 나와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잇단 대홍수와 기근에 수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참상이 다시 재현하는 듯한 위기의 조짐과 상황인데도 북한정권은 체제유지에만 급급할 뿐, 변화의 기미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음은, 최악의 인권사각지대에서 무자비한 악행이 저지르는 악순환의 되풀이 현상으로, 우리가 우려할 일은, 그래도 저들이 같은 동족 인만큼 저들만의 문제가 아닌 한민족 전체의 일이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루어 돌이켜보건대, 그동안 우리사회는 교육입국을 위해 고학력 위주의 영재를 지향한 교육열로 출세·영달이 목적이었던 교육풍토였지만, 이제는 먹고 살만도 하니 뒤틀린 가치관을 과감히 지양, 세태·관습에 편승한 맹목적 유아교육·조기교육의 열정보다는 먼저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며 몸소 보여주는 것이 훨씬 아이의 장래와 행복을 위한 길임을 알며, 나아가 국제기구가 마련한 어떤 방식의 외교적 평화조약 체결보다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은 선악의 행위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과보(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교육과제의 중심에 두고 철저히 인식·이해하는 가운데, 인과율이 보편적 삶의 가치관으로 자리 할 때, 무상하게 변하며 수시로 바뀌는 법이며 제도의 조약과 협정이 한순간 깨어지면서 그때마다 대립·분쟁을 야기하며, 수천 년 지속

된 야만적 범죄 행위를 불식시키는 일인 한 것 이상론이라 치부한다면, 이는 곧 교육의 이상을 포기 하는 일이 된다.

자연의 법칙에서 우연이란 없으며, 개체적 생명은 전체를 의미하는 상호 유기적 관계로써, 마치 새강이 마르면 큰 강 또한 강수량이 줄고 마르게 되듯이, 인체의 동맥처럼 서로 하나로 이어진 외존·존속 관계에 있다.

“...하나는 전체이고 그 전체는 하나로 통하며 하나 중에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는 곧 하나인 즉 한 티끌 속에 시방세계가 들었으며 시방세계는 티끌 같은 시공을 머금었음이라.....”

-의상스님<법성계>중

자연을 비롯한 생태계는 놀랍도록 정교하게 얹혀져 있어 상호 불가분한 연기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환경오염으로 바다의 미네랄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플랑크톤이 줄게 되면 치어와 수생식물이 줄어들면서, 각종 어류가 못 살게 되고 그리 되면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더불어 어민들은 생계 위협을 받으며 수산물 값은 폭등하고 덩달아 다른 물가상승을 부추기며, 가계에 부담을 주면서 자연히 가정살림·나라살림, 국가경제가 힘들어진다. 또 다른 예로, 농촌에서는 예전처럼 소를 기르는 게 아니라, 경영차원에서 많은 수의 소들을 사육하며, 항생제를 남용하고 성장촉진제를 과다 사용하기에, 요즘 소들의 배설물에 미생물이 없어지자 시골

길에 그 흔하던 말뚥구리가 자취를 감추었고, 유기물을 옮기며 토양을 기름지게 하던 말뚥구리가 못 살게 되면서 토양이 산성으로 척박해지자 비료며 독성 농약을 살포해야만 되고 약에 내성(耐性)이 생기면서 병충해가 심해짐에 따라 그럴수록 점점독성 강한 농약이 개발, 농작물에 뿌려지면서 결국 그것을 먹거리로 삼아, 해로운 것은 우리 인체다.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의 해악이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악순환은 바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구 면적의 3/4을 차지하는 무한공간의 심해에는 무엇을 갖다버려도 자연정화 될 것이라는 게 해양관계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근시안적 무지의 행정임이 현실로 드러난 것은 쓰레기를 투기하고서 그리 오래지 않아서이다.

축산물 폐기물(피혁공장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동물 털 등)을 바다에 갖다 버린 건 88년부터다. 환경단체 조사 결과 바다오염이 심각하다는 데도, 당국은 여론 파장이 일까봐 정확한 보도자료(07년)는 꺼리는 실정이라고 하나, 같은 해 포항으로부터 200Km 떨어진 공해상에 수백톤의 축산 폐기물을 집중 투기한 것이, 영덕·울진 계장이 어선 그물에 소털·돼지털, 세제로 쓰인 중금속이 함유된 생물들이 다량으로 잡혀 상품화할 수 없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즐겨먹는 각종 어패류마저 축산물 찌꺼기가 묻어 카드뮴·이산화탄소 등 발암

물질의 독성으로 오염된 어족자원을 먹는 인체는 탈이 안 나겠으며 그걸 먹어야 하는 정신은 성할 수 있겠는가?

인간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 무관심이 저지르는 자연훼손·생태계 파괴는 다시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연기의 순환적 상관관계는 부분이 아닌 전체의 개념에서 인식·이해할 일이다.

온난화로 병든 지구는 3월에 20°를 넘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다가 5월엔 산간지대에 때 아닌 눈이 내리면서 남부지방에도 10°를 웃도는 변덕스런 일기에 다시 내복을 꺼내 입으면서 ‘앞으로는 종잡을 수 없는 기후변화에 사람들 감정의 기복도 심해질 테고 그리되면 전에 없는 해괴한 일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기상관측에 따르면 2020년쯤이면 한반도는 아열대기후가 되면서 남부지방부터 점차 소나무가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소나무가 없는 우리 산은 얼마나 황량할 것이며, ‘...백설 덮힌 낙락장송 휘어진 푸른 솔가지에 앉은 은은한 자태의 고고한 백학’을 그리는 민족의 심성에 깃든 우아한 정서도 옛 이야기가 되고 말 일도 눈앞의 일이다.

지구 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온실가스 중 주범이라는 자동차 배기가스에는 사람은 물론 미생물까지 죽이는 아황산·벤젠·카드뮴 등의 맹독성이 들어있는 데도, 도로는 비업무차들로 어딜 가나 메워져 있으며, 심지어는 요즘은 수행하는 스님들조차 이동이 편의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생

각 없이 차를 필수품으로 여기며 소유하고 있지만 이 일은 에너지 소비 절감 차원에 앞서, 검소와 절제를 수행자의 덕목으로 하는 분수와 자족의 “온당한 행위며 처신”에 입각해 보더라도 누구라도 누구라 할 것 없이 돌이켜보고 자제할 일이다.

“시대와 변하는 세월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로서 합리화함은, 불살생을 제1계율로 삼는 불가에서, 적어도 스님들은 삼갈 일이며, 자동차 운전·차굴림을 아무런 비판의식 없이 예사로이 여기는 그 자체가 분명히 불살생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처사다. 모두 기억하고도 남을 일이지만 금세기 들어서만 태풍 ‘카타리나’는 미(올리언즈) 역사상 최악의 피해를 냈는가 하면, 태풍 ‘매미’는 북한지역을 강타하며 굶주린 시신으로 넘쳐나는 죽음의 지대로 만들었으며, 서남아시아를 휩쓴 쓰나미는 순식간에 30만여 명을 익사케 했고, 이번 미얀마 대홍수 또한 수십만 명을 헤아리는 희생자를 낸 일련의 지구촌 자연재앙과, 한정된 자원을 마구 써대는 소비행태의 현대문화생활의 무절제한 생활방식과는 직·간접 밀접한 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비롯한 생활습관, 무엇이든 아껴 쓸 줄 모르고 새 것으로 쉽게 바꾸는 소비·낭비 습성하며, 달작지근한 감각의 유희와 즐거움만을 좇는 퇴폐·관능, 향락·쾌락주의가 만연된 그릇된 삶의 자세를 고치지 않는 한 미래는 극심한 자연재해·재앙으로 시달려야 함은 자명한 일이다.

천축산 불영사



못에 드리운 부처님의 모습

경상북도 울진의 천축산(天竺山) 불영사(佛影寺)는 해안가에 자리한 명찰이다.

불영사는 울진 포구가 있어 바다가 지척이면서도 절 주변은 천축산의 울창한 삼림이 에워싸고 있어서 산사의 그윽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불영사로 들어가는 계곡인 불영계곡은 깊고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계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불영사는 의상 대사가 창건하였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창건설화가 전한다.

의상 대사는 중국 당나라에 가서 공부한 다음 귀국하여 여러 사찰을 창건하며 불법을 홍포(弘布)하는데 진력하였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찰이 바로 영주 부석사(浮石寺)다. 부석사에서 수도하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여덟 명의 동자를 거느리고 의상 대사를 찾아왔다.

“저희는 동해를 지키는 호법신장들입니다. 이제 인연이 다 되어 이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스님에게 부탁할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의상 스님은 이들을 잘 맞이하며 무슨 일인가 물어보았다. 노인이 말하였다.

“그 동안 저희는 이곳에 부처님을 모시고자 원을 세웠으나 인연 닿는 스님이 없어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님께서 오셨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디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상 스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동해에 가까운 곳에 꼭 사찰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전송했다. 그리고 곧바로 절터가 될 만한 곳을 찾으러 나섰다. 하루는 포항에 도착하여 동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용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인도했다. 그리하여 울진에 닿았는데, 그 용은 사라지고 울진 앞바다에서 오색 구름이 가득 피어나더니 다른 용 한 마리가 나타나 스님을 영접했다. 바로 의상대사와의 애틋한 사랑의 전설이 전해지는 선묘(善妙) 용이었다. 선묘 용이 인도한 곳이 바로 천축산이었다. 입구에 이르자 “손수 인연지를 찾으라”는 말을 남기고 선묘용은 사라져 버렸다. 의상대사는 8일간 혼자 천축산을 헤매며 도량이 될 터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피로에 지쳐 어느 연못가에 쉬다가 연못을 바라보니 연못 위에 부처님의 형상이 비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화엄경을 독송하니 지난번 찾아왔던 호법신장이라 칭한 노인과 동자 8명이 연못 속에서 올라와 의상대사의 설법을 듣고, “이 산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 계시실 당시의 형상과 똑같으며 연못에 비친 부처님 영상은 영축산서 설법하시던 부처님 모습입니다. 주위 환경은 영산회상이 응화된 것이지요.”라는 말을 남기고 용으로 변



응진전



응진전내진과 천장

해 사라졌다고 한다.

이곳이 인연 깊은 곳임을 알았으나 부근 폭포에 용이 살고 있어 먼저 의상대사는 용에게 설법하고 이 땅을 보시할 것을 청했으나 용이 따르지 않자 법력으로 쫓아내었다. 용은 분하여 산을 뚫고 돌을 부수며 떠났는데 의상대사가 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하였다.

의상대사는 이어서 남쪽에 청련전을 짓고 부처님 영상이 나타난 곳에는 무영탑을 세워 비보한 뒤 절 이름을 불영사라 하였다고 한다.

불영사로 들어서면 왼쪽에 연못이 있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범종각이다.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쳤다는 연못 중앙에 서있는 범종각을 기준으로 좌측에 응진전, 우측으로 부채살 모양으로 대웅보전, 극락전, 관음전, 명부전 등 12동의 건물이 그림처럼 정좌를 하고 있다. 불영사도 다른 천년고찰처럼 화재를 피해가지 못했다. 조선 태조 5년(1396) 나한전만 남긴 채 화재로 모두 불에 타 버렸고 임진왜란 때에도 영산전만 남기고 모두 불 타 버렸던 것을 훗날 다시 짓고 많은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보물 제730호 불영사응진전(佛影寺應眞殿)은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좌우에 아난·가섭과 16나한상을 모시고 있다. 이 건물은 1984년 해체보수시에 발견된 상량문(上樑文)에 의하면 당초 영산전(靈山殿)이었던 건물이다. 신라(新羅) 진덕여왕(眞德女王) 5년(651)에 의상대사(義湘大師)에 의하여 시창되었다 하나 그후 오랜동안 많은 중창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니, 만력(萬曆) 6년(1578, 조선(朝鮮) 선조(宣祖) 11년)과 승정(崇禎) 2년(1629, 인조(仁祖) 7년), 강희(康熙) 4년(1665, 현종(顯宗) 6년), 강희(康熙) 55년(1716, 숙종(肅宗) 42년) 등의 중창기록이 있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작고 아담한 다포계(多包



系) 맞배집으로 특히 공포(包)가 건물의 측면에도 돌려져 있음이 특징이다. 전면에는 중앙간에 출입을 위한 분합문과 양 협간에 높은 위치에 살창을 달았다. 전체적으로는 조선 중기적인 특징을 보이거나 첨차(첨遮) 및 쇠서 등 조선(朝鮮) 초기적 수법이 잘 남아 있고 가구(架構)의 결구(結構) 방법도 치밀하게 꾸민 건물이다. 특히 내부에는 빗반자를 외측으로 돌리고 있다. 집의 구조로 보아 당초에는 팔작지붕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언제 지붕이 맞배로 변형되었는지 알 수 없다.

보물 제1201호 불영사대웅보전(佛影寺大雄寶殿)은 대웅보전 건물 내부탱화의 묵서명(墨書銘)에 옹정(擁正)3년 을사(乙巳)(1725,



영조(英祖)원년)로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팔작집으로, 공포(공包)는 외3출목, 내4출목으로서 내4출목에서 3출목과 4출목을 같은 높이로 처리하는 특별한 구조를 보여주는 등 각 부재의 조각솜씨가 고급스러우며 격식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금단청(金丹青) 계열에 속하는 내부단청과 불화는 이 건물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 중의 하나로 천장의 청판을 처리한 기법과 별지화 및 벽화는 매우 수준이 높다.

보물 제1272호 불영사영산회상도(佛影寺靈山會上圖)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표현한 후불 그림으로 중앙에 설법인(혹은 향마 축지인)의 석가여래를 모시고 좌우에는 5위씩의 십대보살을 묘사하였다. 협시보살 윗쪽 좌우에는 제석천과 범천상·아랫쪽 좌우에는 사천왕상, 본존의 윗쪽 좌우에는 십대제자상과 신중상들을 배열하였다. 구도에 있어서 영산회상도는 일반적으로 팔대보살이 표현되나 이 불화에서는 십대보살이 묘사되고 협시보살인 문수(文殊)(혹은 관음(觀音))·보현(普賢)(혹은 대세지 보살(大勢至菩薩))을 아래쪽에 크게 묘사하여 강조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좌상의 석가모니불 법의(法衣)가 홍가사(紅袈裟)를 취했고 광배도 붉은 테를 두른 이중광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 등은 영·정조때에 많이 제작된 조선 후기 불화의 양식에 선행하는 것으로, 하동 쌍계사 팔상전에 소장된 숙종때의 영산회상도, 대구 파계사 원통전의 영산회상도와도 양식적 특징에서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불영사영산회상도이다.

자 이제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다. 따스한 봄빛을 받으며 연못에 비친 부처님의 모습을 찾으러 떠나보자.

무슨 흔적이 남았을까

최재목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간다
보일 듯 말 듯한 흙 틈새로
그들만이 아는 길 따라
끊임없이,

그래서, 무슨 흔적이 남았을까
살펴봐도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다
순간에도 다가서지 못하고
영원이란 건 더더욱 알 턱도 없는
그들이 다녔던 길엔,

최재목 | 경북 상주 출생

1987년 <매일신문>신춘문예로 등단

시집 『나는 폐차가 되고싶다』, 『잠들지 마라 잊혀져간다』,

『해피 만다라』등 다수

현재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흔적’이었던 것들의 실체

우리네 일상사는 ‘나’와 더불어 사건이 일어나고 그것은 혈류처럼 돌고 돌아 가족, 친지, 이웃을 넘어 지역, 사회, 국가, 세계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세계, 국가, 사회,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사건이나 사고)은 이웃, 친지, 가족을 통해 나에게 흔적이 되기도 한다. 애써 표출하는, 영원히 남겨질 것 같은 그런 ‘흔적’들이 사실은 인간사를 넘어 우주적 관점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우리들은 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치사해지고 비열해지고 극단적으로 목숨까지 거는 일도 종종 있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지 않은가. 그 ‘생각’을 최재묵 시인의 시 「무슨 흔적이 남았을까」에서 얻었다.

‘보일 듯 말 듯한 흙 틈새’를 기어가는 벌레 한 마리도 놓치지 않는 시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그 시선이 유명한 공간은 벌레 한 마리에서 우주 전체를 관통한다.

그저, 다분히 ‘벌레’적 행위인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벌레에게서 그들(벌레)만의 길이 있음을 알아차린 시인은 비록 벌레이지만 그들도 자신들만의 세계를 가지고, 자신들의 공간에서 자신들의 길을 만드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기어)간 길에 ‘무슨 흔적이 남았을까’ 살펴도 본다. 하지만 시인은 살펴봐도 ‘발자국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세계에도 영육이 있을 것이고, 아귀다툼이 있을 것이기에, 그 어떤 흔적이 있을 것임에도 그들보다 좀 더 큰 세계에서 살고 있는 시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벌레가 지나간 것, 뿐이었던 것이다.

‘순간에도 다가서지 못하고’ ‘영원이란 건 더더욱 알 턱도 없는’ 그들(벌레)이 실상은 우리들 자신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복잡하게 얽힌 인간사에서 ‘흙 틈새’ 같은 경쟁 상대들을 비집고 길을 내고, 발자국을 찍고, 제 이름을 새겨 놓으려 인간힘들을 쓰지만 좀 더 넓은, 상위의 세상에서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그저 벌레 한 마리 기어가는 것일 뿐이리는데, 무슨 ‘흔적’이 남겠는가?

우주를 보고 미물을 헤아리는 시인의 시선에 편승하여 각성(覺醒)의 기회를 얻고 보니 내 지나 온 길 위에 흩뿌려 놓았을 흔적들 새삼 민망하다.

_김은령(시인)

변산·내소사 신비로운 법당

『스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지요. 이렇게 나와서 1년을 기다려도 목수는 오지 않으니, 언제 대웅전을 짓겠습니까? 내일은 소승이 좀 미숙해도 구해 오겠습니다.』

『어, 군말이 많구나.』

『그리고 기다리실 바엔 절에서 기다리시지 하필이면 예까지 나오셔서...』

『멍청한 녀석. 내가 기다리는 것은 목수지만 매일 여기 나오는 것은 백호혈(白虎穴)을 지키기 위해서니라.』

노승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늙은 호랑이가 포효하며 노승 앞에 나타났다.

호랑이의 안광은 석양의 노을 속에 이글거렸다. 아무 일 없었던 듯 노승이 주장자를 휘저으며 호랑이 앞을 지나려 하자 대호는 앞발을 높이 들고 노승을 향해 으르렁댔다.

『안된다고 해도 그러는구나. 대웅보전을 짓기까지는 안돼.』

노승은 주장자를 들어 소나무 허리를 때렸다.

「팽」 하는 소리가 나자 호랑이는 「어흥」 하는 외마디 울부짖음을 남기곤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날 저녁 타 버린 대웅전 주춧돌에 앉아 산을 내려다보던 노승은 사미승을 불렀다.

『너 일주론 밖에 좀 나가 보아라. 누가 올 터이니 집을 받아 오도록 해라.』

『이 밤중에 어떻게 일주론 밖을 나가라고 하십니까?』

『일주론 밖과 여기가 어떻게 다르기라도 하단 말이나?』

마지못해 대답을 하고 간신히 일주론에 다다른 선우의 가슴은 철렁했다.

무슨 기다란 동물이 기둥에 기대어 누워 있지 않은가.

입 속으로 염불을 외우며 다가서니 누웠던 사람이 일어났다. 나그네였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이 마중을 보내서 왔습니다.』

나그네는 아무 말 없이 걸망을 둘러메고 걸었다.

『손님,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스님께서 집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나그네는 묵묵히 걸망을 건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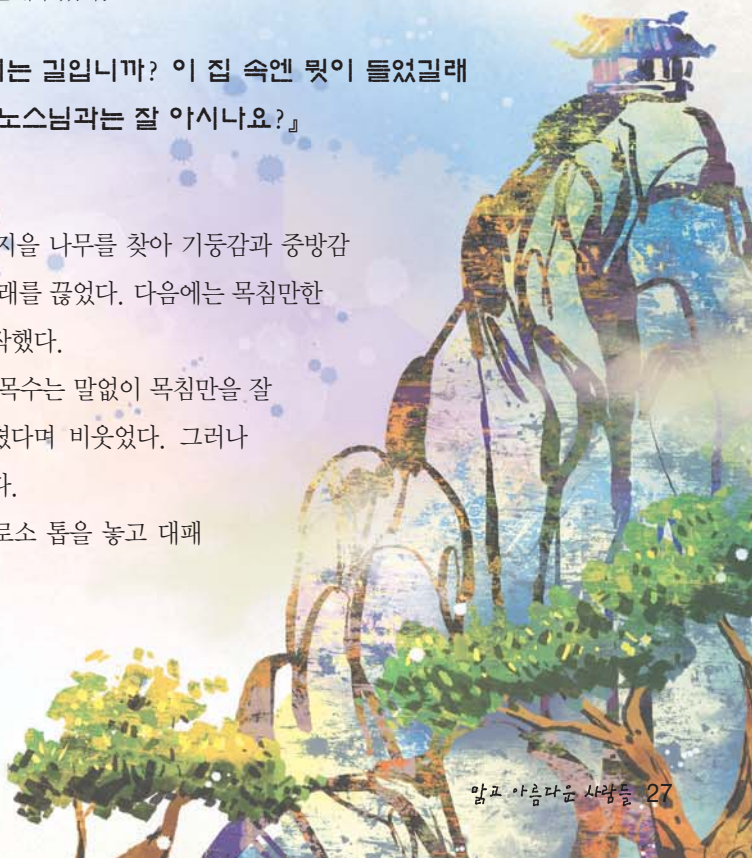
『손님은 어디서 오시는 길입니까? 이 집 속엔 뭇이 들었길래
이리 무겁습니까? 노스님과는 잘 아시나요?』

나그네는 대꾸가 없었다.

그는 다음날부터 대웅전 지을 나무를 찾아 기둥감과 중방감을
을 켜고 작은 기둥과 서까래를 끊었다. 다음에는 목침만한
크기로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묵수는 말없이 목침만을 잘
랐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비웃었다. 그러나
노승은 말없이 웃기만 했다.

어언 다섯 달, 묵수는 비로소 톱을 놓고 대패
를 들었다.



목침을 대패로 다듬기 시작한 지 3년. 흡사 삼매에 든 듯 목침만을 다듬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보 목수양반, 목침 깎다가 세월 다 가겠소.』

선우의 비웃는 말에도 목수는 잠자코 목침만을 다듬었다. 선우는 슬그머니 화가 나 목수를 골려 주려고 목침 하나를 감췄다.

사흘이 지나 목침깎기 3년이 되던 날. 목수는 대패를 버리고 일어나더니 노적만큼 쌓아올린 목침을 세기 시작했다.

무수한 목침을 다 세고 난 목수의 눈에선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일할 때와는 달리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깃들었다.

연장을 챙긴 목수는 노승을 찾아갔다.

『스님, 소인은 아직 법당 지을 인연이 먼 듯하옵니다.』

절에 와서 처음으로 입을 여는 목수를 보고 선우의 눈은 왕방울만큼 커졌다.

『왜 무슨 까닭이 있었느냐?』

노승은 조용히 물었다.

『목침 하나가 부족합니다. 아직 저의 경계가 미흡한가 봅니다.』

『가지 말고 법당을 짓게. 목침이 그대의 경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세.』

선우는 놀랐다. 목침으로 법당을 짓는 것도 신기하지만 그 산더미 같은 목침 속에서 하나가 없어진 것을 알다니-.

목수는 기둥을 세우고 중방을 걸고 순식간에 법당을 완성했다.

법당에 단청을 하려고 화공을 불러왔다.

노승은 대중에게 엄격히 타일렀다.

『화공의 일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법당 안을 들여다박서는 안되느니라.』

화공은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밖에 나오질 않았다. 사람들은 법당안에 그려지는 그림이 보고 싶고 궁금했다. 그러나 법당 앞에는 늘 목수가 아니면 노승이 지키고 있었다. 어느 날, 선우는 법당 가까이 가서 목수에게 말했다.

『스님께서 잠깐 오시랍니다.』

목수가 법당 앞을 떠나자 선우는 재빠르게 문틈으로 법당 안을 들여다봤다. 이상한 일이었다. 그림 그리는 사람은 없는데 오색 영롱한 작은 새가 입에 붓을 물고 날개에 물감을 묻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은가. 선우는 문을 살그머니 열고 법당 안으로 발을 디밀었다. 순간 어디선가 산울림 같은 무서운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서 새는 날아가버렸다. 노호 소리에 놀란 선우가 어슴프레 정신을 차렸을 때 노승은 법당 앞에 죽어 있는 대호를 향해 법문을 설했다.

『대호선사여! 생사가 돌이 아닌데 선사는 지금 어느 곳에 가 있는가. 선사가 세운 대웅보전은 길이 법연을 이으리라.』

때는 1633년. 내소사 조실 청민선사는 대웅보전 증축 후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변산반도 한 기슭에 자리한 내소사 대웅전(보물 제291호)은 지금도 한 개의 포가 모자란 채 옛 위용을 자랑하고 있으며 그리다 만 벽화는 날로 퇴색해 가고 있다.



수미단

불교의 우주관을 표현해 놓은 불단



법당 안에 부처님을 높이 모시기 위해 만든 단을 불단, 또는 수미단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수미라는 말은 수미산에서 따온 것이다. 수미산은 불교의 세계관에 따르면 높이가 8만 유순(약 80만km)이나 된다. 불상을 올려 놓는 단을 수미단이라 한 것은 부처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 곳곳에 수미산을 상징하는 무늬를 새겨넣는데, 상중하 3단에 연꽃·구름·만(卍)자 등을 새기기도 하고, 수미산에 산다는 짐승이나 사자·호랑이·코끼리·물고기·거북·가재 등을 조각하기도 한다. 또한 상상의 동물인 용과 봉황이나 스님상·동자상·사천왕상·비천상·도깨비상 등을 조각하기도 한다. 보통은 정사각형으로 만들지만 팔각형이나 육각형인 것도 있다. 육각형은 육바라밀, 팔각형은 팔정도를 의미하며 정사각형의 사각은 동서남북을 상징한다고 한다. 상중하 3단 중 상단과 하단은 각각 16단의 작은 단으로 꾸미는데, 이 작은 단은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대보리심을 상징한다. 위로 향한 16단은 혜문(慧門)의 16대 보살을, 아래로 향한 16단은 정문(定門)의 16대 보살을 뜻한다. 여기에 법(法)·계(界)·체(體)·성(性)·지(智)를 합하여 ‘금강계37존’이라고 부른다. 불전 내부에서 불상을 한 단 높이 모서 놓기 위해 설치한 성스런 자리를 불단이라고 하는데, 이를 수미단이라고 칭한다. 우리나라의 불단은 거의 수미단 형식을 취하고 있다. 불상을 수미단에 배열하는 것은 불전 내부 일곽을 수미산으로 간주하여 특히 신성한 장소로 구획하기 위해서이다.

수미산은 원래 힌두교의 신 인드라(재석천)가 거처하고 있는 수메르sumeru를 지칭하는 말로, 불교에 유입된 뒤 부처와 보살이 상주하는 곳을 가리키게 되었다. 수미산의 꼭대기에는 도리천궁이 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신 마야부인이 그곳에 머물고 계신다. 어느 땐가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를 위해 설법을 하신적이 있었다. 이 설법을 계기로 불상이 조성되었다는 연기설화가 경전에 전하고 있다. 수미단은 일반적으로 상·중·하대의 구분이 있다. 상대에는 양련(仰蓮)[연꽃이 위로 활짝 핀 모습]을, 하대에는 복련(覆蓮)[꽃잎이 아래로 숙인 모습]을 새기고, 중대에는 초화문(草花文)등의 화려한 장식과 함께 코끼리, 봉황, 거북 등 길상을 상징하는 동물의 조각이나 그림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수미단은 다른 그 어느 것보다도 화려하고 장엄하다. 불교에서 장엄이란 ‘화려하고 엄숙하게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부처나 보살의 몸이 그 공덕에 의하여 환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 신자들이 불당이나 불상을 장식하는 것끼리 의미하게 되었다. 불전 내부를 장엄하게 하는 것으로는 수미단을 비롯하여 천개(법당의 본존불 머리 위의 천장에 머리장엄을 위해서 치레한 것), 광배, 대좌 같은 내부 치레에서부터 지붕의 기와, 그리고 긴 장대에 매단 깃발인 당번(幢幡)에 이르기까지 모든 치레 불구를 말한다. 수미단이 장엄하게 꾸며지는 것은 부처의 세계가 수





미산 위에 있는 제석천의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만물의 꼭대기에 있으면서 우주 삼라만상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제석천의 세계와 같이 부처님의 세계가 자비와 기쁨이 가득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부처의 보다 높은 격을 상징화시켜 표현한 수미단은 단순한 치레를 뛰어 넘어 불교의 정신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불단의 형태는 그 재료에 따라 석단, 토단, 목단 등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돌이나 흙으로 된 불단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의 불상에도 수미단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은 없다. 현재 남아 있는 수미단을 살펴보면, 봉정사 극락전의 목조 불단은 건립 시기인 13세기에 함께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위사 극락전의 불단도 건물의 건립 연대인 1430(세종 12)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15세기초의 불단으로 추정되는 것은 봉정사 대웅전 불단이다. 고려말 조선 전기의 대표적 불전인 부석사 무량수전이나 수덕사 대웅전, 개심사 대웅전의 불단은 아직 제작 연대를 알기 어려우나 건물 건립 당시의 원작은 아닌 듯하며, 직육면체 형태의 장방형 불단이 일반화된 16, 7세기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16세기 이후의 불전에서 보이는 장방형 불단은 적어도 15세기에는 그 형식이 완성된 듯하며 예불과 공양 및 수장 기능까지를 담당하는 구실은 이후 조선 말기까지 지속된다. 조선시대의 불단은 많이 남아 있지만 경북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은해사 백홍암의 수미단을 으뜸으로 손꼽는다. 극란전 안의 아미타삼존불을 봉안하고 있는 장방형의 이 수미단은 1968년에 보물 제486호로 지정되었다. 은해사의 북서쪽 골짜기에 자리잡은 백홍암은 신라 하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

는데, 극락전은 조선 인조 21년(1643년)에 중건되었다. 높이 125cm, 너비 413cm의 수미단은 뛰어난 조각기법과 그 세부 장식의 화려함, 특이한 구성에서 단연 돋보인다. 백홍암의 수미단을 으뜸으로 손꼽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서 묘사한 대로 극락정토의 장엄함을 극락전에 꾸미려고 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중종15년(1520년), 암자 부근에 뒷날 인종이 되는 왕세자의 태가 봉안됨으로써 명종 때 ‘막중한 것을 수호하는 곳’으로 지정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게 됨과 관계가 깊다. 특히 영조는 어명으로 봉안소임을 지정하여 경상감사로 하여금 특별 수호의 책임을 맡게 했다. 태실 수호를 계기로 백홍암은 그 모습을 일신하고 사세를 탈없이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백홍암은 수십여 명이 모여 율력과 수행에 여념이 없는 비구니들의 청정도량이다. 비교적 손상이 적은 백홍암 수미단은 상하대 각 1단과 중대 3단의 5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은 중대 3단과 하대 1단 가운데를 다시 5등분하고, 좌우 측면은 2등분으로 구획했다. 상단은 돌출시켰으며, 각 구획 안에는 안상문을 부조하였다. 중대는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었는데, 제1단은 봉황, 공작, 학, 꿩 등이 투조되어 있으며, 제2단은 용, 동자, 물고기, 개구리 등이, 제3단은 코끼리, 사자, 사슴, 인면신어등이 모란, 연꽃 같은 장식을 배경으로 새겨져 있다. 제일 하단은 모서리에 귀면(혹의 용의 얼굴을 정면에서 표현한 모습)이 조각되었고, 가운데 3구에는 용이 표현되었다. 이렇게 각 단마다 새나 동물 등이 특징 있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물론, 나무를 투조한 기법은 가장 빼어나고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괴시리 전통마을

전통마을 하면 기본적으로 배수임산(背水臨山)의 위치에 자리한다.

앞에는 넓은 평야가 있고, 강이 흐르며 아름다운 경치를 한 산이 가까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영천 괴시리는 푸른 동해바다라는 아름다운 경치를 텃으로 가지고 있다.

영해평야를 앞에 하고 망일봉을 뒤로 한 괴시리 전통 마을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짭짤한 소금내음이 묻어 있다. 남동쪽의 망일봉(望日峰)에서 뿔어 내려오는 산세가 마을을 입(入)자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지형에 맞추어 대부분의 가옥들이 서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을 주변에 늪이 많고 마을북쪽에 호지(濠池)가 있어 호지촌 이라 불리웠다 했던가?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마을 앞 늪에 핀 연꽃이었다. 마을 앞을 전부 연꽃으로 장엄해 놓은 것이 장관이었다.



원래 마을 이름이 호지촌이었으나, 고려말 목은 이색선생(1328~1396)이 문장으로써 원 나라에 이름을 떨치고, 고국으로 돌아와 구양박사(歐陽博士) 구양현(歐陽玄)의 괴시 마을과 자신이 태어난 호지촌의 시야가 넓고 아름다운 풍경이 비슷해 괴시(槐市)라 고쳐 이름지었다고 한다. 유명한 문장가로 유명한 목은 선생이지만, 전통적인 이름을 버리고 중국의 마을이름을 가져왔다는데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괜시리 괴시리로 고친것은 아닌지...

전통마을... 솔직히 예전의 진흥길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마을 입구 들어가는 길부터 콘크리트 포장으로 길을 깔끔하게 정비해 놓아져 있었다. 마을 담벼락까지 콘크리트로 보수해 놓은건 아닌지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우리의 전통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괴시리 마을에는 원래 네 개의 성씨가 살았다고 전해진다. 영양 남씨, 함창 김씨, 수안 김씨, 그리고 영해 신씨가 살았는데 세 개의 성씨는 다른 데로 떠나고 영양 남씨만이 마을을 지켰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마을에는 영양 남씨 일족들이 고택을 지키며 살고 있다.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렇게 고풍스런 양반 마을이 왜 하필이면 바닷가 근처에 형성되었나 하는 점이다. 이 마을은 울진에서 영덕으로 가는 7번 국도변의 영해 4거리에서 대진





향으로 접어드는 12번 군도를 따라 조금만 가면 나타나는 곳이어서 바다와 아주 가깝게 있다. 보통 양반가 마을은 내륙에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왜 하필이면 이곳에 터를 잡았던 말인가. 해답은 바로 마을 앞에 있는 영해평야에 있었다.

강릉과 더불어 동해안의 3대 평야로 불리는 영해평야는 세도가들의 터전이 되기에 충분한 곡식과 자원을 생산했다. 널따란 평야를 세도가들이 놔 둘리 만무할 터. 민초들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한 쌀에서 그들의 세도와 유교문화가 탄생한 것이다. 게다가 바다가 가까이 있어 내륙에서 구하기 힘든 어물 자원을 수시로 구할 수 있으니 일석삼조의 터전이었던 것이다.

괴시리에서 가장 주목받는 고택은 아무래도 영양 남씨의 종가집이라고 할 수 있다.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75호인 이 고택은 정침과 사당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조선 후기 주택 형



태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침은 제사를 올리는 몸채 방으로써 정면 8칸, 측면 5칸의 규모이며 전형적인 ‘口’자 구조를 갖고 있다.

경북 문화재 제98호로 지정된 물소와 고택도 눈여겨 볼만한 가옥이다. 이 집의 특징은 당시의 유교적 윤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집 안 우물에서 가사 작업하는 여성들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 안에 6m 정도의 담벼락을 별도로 세운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남·녀의 생활공간을 엄격히 분리하기 위해 사랑채 정면이 여성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별도의 대문채가 있는 경주택이나 천전택도 특이한 구조로 유명하다. 특히 천전택은 속칭 날개집이라 하여 안채와 사랑채가 이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只'자 형의 평면구조라고 불린다. 19세기 전반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측되는 천전택은 경북도내의 전통 가옥 구조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몇 집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살지 않는 마을. 너무나 조용하여 사람마저 구경하기 힘든 곳이 괴시리 마을이다. 혹 인적을 찾을 수 있나 해서 나즈막한 담장너머로 안을 들여다보고, 부엌이며 사랑채,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해 볼 수 있는 곳이 괴시리 마을이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하다.

아름다운 연꽃이 가득피어 마을 입구에서 우리를 반기는 괴시리 마을.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전통마을의 아름다움을 구경하러 떠나가 보자.



일타큰스님께서 들려주시는 생활속의 기도법

영가 천도 기도법 2

(2) 자력의 천도, 타력의 천도

해인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이야기는 영가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것과 연결시켜 영가 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보자.

죽어서 육체를 이탈한 영(靈)은 업을 좇아 해매이게 되고, 자기의 업과 인연이 있는 곳에 이르면 견잡을 수 없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비단 개구리가 화려한 옷을 입고 풍악을 울리며 놀고 있는 청춘 남녀로 보인 것이나, 또아리를 튼 뱀이 어여쁜 여인으로 보인 것도 한 예이다.

영혼은 자기가 태어나야 할 인연처에 이르면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낙원처럼 보이게 된다고 한다. 이것이 묘한 점이다. 까마귀로 태어날 영혼에게는 까마귀 둥지가 대궐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대궐 같은 까마귀 둥지로 들어가 까마귀 새끼로 태어나고 만다. 스스로 지은 업의 에너지가 맞는 사이클을 찾아 파고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명업력(無明業力)이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어둠이다. 이 업

의 장벽에 가리어 까마귀 둥지를 까마귀 둥지로 보지 못하고 뱀의 몸을 뱀으로 보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캄캄한 무명(無明)을 제거하여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살아 생전에 스스로 닦아 익힌 수행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49재 등의 타력적(他力的)인 천도 의식을 통한 구원이다.

살아 생전에 불경을 공부하고 참선, 염불 등의 수행을 많이한 사람은 죽은 후에도 미혹에 휩싸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아 스스로가 꼭 태어나야 할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부처님의 한 말씀 가르침, 예를 들어 <금강경> 사구계(四句偈)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깊이 새겨 좌우명으로 삼는 이라면 나쁜 악도(惡道)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옛날, 공부한 것이라고는 <금강경> 사구계 한 구절밖에 없는 스님이 평생토록 욕심을 부리다가 죽었다. 그 스님의 영혼은 이곳

저곳을 해매 돌아다니다가 대궐보다 더 화려해 보이는 까마귀 둥지가 너무나 좋게 보여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고자 하였다. 그때 허공에서 우뢰와 같은 소리가 들려 왔다.

무릇 모양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 있는 것이 모양 아닌 줄을 알면

곧바로 부처님을 보리라

凡所有相

皆是處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네가 평소에 이것 하나만을 부지런히 외웠거늘, 어찌 까마귀 둥지를 대궐보다 더 좋게 보고 들어가려 하느냐? 눈을 떠라. 눈을 떠라. 네가 그곳에 빠져들면 영원히 헤어나기 힘들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스님은 까마귀 둥지를 벗어나 새롭게 발심하고 불법을 잘 닦을 수 있는 인연처를 찾아 태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불가(佛家)에서 몇 년마다 윤달이 드는 해에 베푸는 예수재(豫修齋)도 같은 의도에서 마련된 의식이다. 사후 세계를 위하여 미리 닦는 예수재, 이 예수재 때 수행을 잘하게 되면 그 공덕이 밑거름이 되어 능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예수재는 이름 그대로 ‘미리 닦는

것’이다. 단순히 몇 푼의 돈을 내고 형식적으로 이 절 저 절을 찾아다니서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참으로 그 이름에 걸맞는 ‘예수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선심(善心)을 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아 내생까지도 구제할 수 있는 불연(佛緣)을 맺어야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예수재를 마련한 참 뜻이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고 깨달음의 씨를 심도록 인도하기 위함에 있다는 것을 예수재에 참여하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참된 원을 심고 깨달음을 이루는 공부를 배워 익힌다면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고 생사 윤회를 두려워하겠느냐? 오히려 죽음을 웃을 갈아입듯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내생을 새로운 희망으로, 정진의 터전으로 받아들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가짐만 가지고 수행하면 자기 영혼은 능히 스스로 천도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자력 천도(自力薦度)인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인 타력 천도(他力薦度)는 다른 사람이 죽은 자로 하여금 좋은 인연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바로 망자의 마음을 바꾸는 법문이다. 망자가 살아 생전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속에서 한 평생을 보냈으니 죽었다 하여 어찌 그 마음이 바뀌겠는가? 자연 그 마

음은 어둡지 않을 수가 없다. 바로 그러한 마음을 밝혀 주기 위해 행하는 것이 공양, 독경, 염불, 법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재의식(齋儀式)인 것이다.

살아 있는 사람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듯이, 영가도 염불과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어 참회하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재를 지낼 때 준비하는 음식이나 법공양하는 책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재를 지낼 때 충분한 음식을 마련하여 베푸는 것은 망인으로 하여금 재시(財施)의 공덕을 쌓도록 하는 것이고, 각종 불교 서적을 법공양하는 것은 법시(法施)의 공덕을 쌓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의 법공양은 특히 의미가 있도록 행하여야 한다.

곧 법공양은 망인을 대신하여 법문을 베푸는 것이므로, 그 책을 받아 읽는 사람이 불교의 진리를 잘 이해하여 발심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곧 최상의 공덕인 발보리심(發菩提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책을 선정하여 법공양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인 것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려운 한문 경전이나 난해한 불경을 준다 한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법공양 책을 선택하는 스님이나 가족들도 꼭 어려운 불경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할 수 있고 인생과 수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불서를 채택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굳이 강조하는 까닭은 법공양한 책을 읽은 이들이 발심할 때라야만 그 공덕이 망인에게 참된 도움을 줄 수 있고 발음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법공양을 하는 스님, 가족, 친지들은 이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

(3) 영가와 통하는 것은 마음과 마음

이제 재를 지내거나 독경, 염불하는 이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영가를 천도할 때는 의식을 집전하는 스님이나 가족 할 것 없이 매우 조심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반드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천도를 하라는 것이다. 앞의 해인사 학승 이야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입으로만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품고 있으면 결코 천도가 되지 못한다. 한 스님은 요령을 흔들면서 <제경행상>이라는 책을 생각했고, 한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면서 ‘은혜나무 바리때’를 탐하였다.

결국 영혼은 염불 한마디 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들었던 것이다.

곧 영혼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읽는다. 영혼과는 마음과 마음, 생각과 생각으로 서로 통할뿐이다.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염불보다는 잣밥’이 되어서는 절대로 올바른 천도가 될 수 없다.

오직 마음을 모아 지극히 염불을 할 때 영가에게 참된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사항을 더 부연한다면 영가 천도를 위한 관음시식(觀音施食) 중, 4다라니(四陀羅尼)를 외을 때는 특히 관(觀)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다. 4다라니는 변식진언(變食眞言), 시감로수진언(施甘露水眞言), 일자수륜관진언(一字水輪觀眞言), 유해진언(乳海眞言)의 넷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변식진언”을 세 번 외움에 있어 첫 번째는 밥 한 그릇이 일곱 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하고, 두 번째는 일곱 그릇이 마흔아홉 그릇으로 변하는 것을 관해야 하며, 세 번째는 수없이 많은 공양물로 변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관해야 한다.

“감로수진언”을 외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옛말에 ‘하늘 사람은 물을 유리 궁전으로 보고, 사람은 물로 본다. 고기는 물 속에 살면서도 물을 보지 못하고, 귀신은 물을 불로 본다(天見琉璃人見水 魚不見水鬼見火).’고 하였다. 이와 같이 귀신은 물을 불로 보기 때문에 감로수 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로수진언을 외워 주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한다.

실로 변식을 이루어 내고 감로수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은 주문의 힘과 관상력(觀想力), 삼보(三寶)의 신력(神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4다라니를 할 때는 반드시 마음으로 관(觀)해야 한다. 흔히들 기도나 영가 천도는 백 명이 하는 것보다 도력 있는 스님 한 분이 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도 도력 있는 스님의 관상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력이 있는 스님은 의식문이나 진언을 외우지 않고 가만히 관을 하고 앉아 영가에게 곧바로 설법을 하는 것이다.

명심하라. 영가는 마음으로 통하는 존재이다. 내 마음을 그릇되게 가질 때 영가는 천도되지 않는다.

잡된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이것이 영가 천도의 가장 요긴한 비결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여기까지 읽은 재가 신도들은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관을 통한 천도나 49재 등의 전문적이 천도법을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천도법은 없을까?”

그렇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천도법은 작법(作法)을 제대로 익힌 스님들께 의뢰하면 된다. 그리고 재가인 들은 자기의 형편과 능력에 맞는 방법으로 앞서간 부모나 친척 친구 등을 천도해 주면된다. 오직 내 진실한 마음만이 가까운 이의 영혼을 좋은 세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부처님의 생애

- 팔상성도 -



부르나존자가 그린 부처님 초상

불교의 시작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과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석가모니라는 명칭은 ‘석가족 출신의 성자(聖者)’라는 의미이며,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부처님의 성은 고타마이며 이름은 싯달타였는데 진리를 깨달은 이후부터 부처님(Buddha)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소리를 따서 ‘불타(佛陀)’로 적거나 혹은 뜻을 옮겨서 ‘각자(覺者)’라고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밖에도 부처님은 여러 다른 명칭으로 불리는데, 전통적으로는 여래십호(如來十號)라 하여 10가지의 이름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B.C. 624에 탄생하셔서 544년에 열반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불기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해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가)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

호명보살이 10바라밀을 수행하면서 도솔천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 모든 천인들이 보살의 처소에 모여들어 중생을 제도하기를 권하자 호명보살은 자신이 태어날 때와 장소, 가계, 생모 등에 대해 살피신 뒤, 석가족의 마야부인의 태중에 드시리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호명보살은 깊은 선정에 들어 마야부인의 태에 들었고, 정반왕과 결혼한 지 20여년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마야부인은 그때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태자를 잉태하였습니다.



나)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

마야부인은 해산일이 다가오자 그 당시 인도의 관습에 따라 친정인 콜리성(Koli ; 拘利城)으로 향하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러 잠시 쉬는 사이에 산기를 느껴 무우수나무 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 태자는 사방으로 일곱 걸음을 걷고 사방을 둘러보고는 “하늘 위 하늘 아래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헤메이니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天上天下 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이때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나



아기태자를 받쳐 주었으며, 아홉 마리의 용이 오색의 감로수로 태자를 씻겨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자가 태어난 지 닷새가 되던 날, 히말라야로부터 아시타 선인이 내려와 태자를 배알하고는 “왕자는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실 것이고, 왕위를 계승하면 전륜성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얻은 기쁨도 잠깐, 태자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인 마야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정반왕은 이모인 마하프라자파티를 왕비로 삼아 아이를 기르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타 선인의 예언에 따라 태자가 출가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삼시전(三時殿)을 지어 향락 속에 자라게 했습니다.

다)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

태자가 12세 되던 어느 날 정반왕과 함께 농경제에 참가하였는데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보고 있던 태자는 농부들의 마르고 고단한 모습과 채찍을 맞아며 쟁기를 끄는 소들의 모습, 그리고 보습 끝에 일구어지는 흙덩이 속에서 살겠다고 꿈틀거리는 벌레를 어디선지 새 한 마리가 쏙살 같이 날아와 쪼아 물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에 태자는 부왕과 대신들 곁을 떠나 나무숲으로 들어가 그들 밑에 앉아서 왜 이 세상은 서로 잡아먹고 먹히우며 또 고단하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편안히 놀면서 배불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에 대해 혼자 골똘히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염부수(閻浮樹)아래의 명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정반왕은 태자를 세상과 더욱 멀어지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럴수록 태자의 세상에 대한 고뇌는 더욱 깊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는 부왕 몰래 성문 밖을 나서게 되는데, 동문에서는 늙은이를 남문에서는 병든 이를 서문에서는 죽은 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가진 어떤 것들도 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번민하던 태자는 북문에서 출가 수행자를 보고는 출가 수행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라)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

그리하여 태자는 부왕에게 출가를 허락해 주기를 간청하였고 태자의 출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린 부왕은 왕통을 이을 왕손을 얻기 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 출가를 막았습니다. 이에 태자는 같은 석가족 출신의 폴리성(拘利城) 성주의 공주인 야소다라와 결혼하여 아들 라훌라를 낳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자는 모든 사람들이 잠든 밤에 사랑하는 아내 야소다라와 아들 라훌라를 남겨두고 애마인 칸다카를 타고 마부인 찬다카를 앞세워 왕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가 태자 나이 29세가 되던 해 음력 2월 8일이었습니다.



성을 나온 태자는 보검을 빼어 들어 스스로 머리와 수염을 깎고, 자신의 비단옷을 거지의 누더기와 바꿔 입은 뒤 출가수행자, 즉 사문(沙門)이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훌륭하다고 소문난 두 명의 수행자로부터 선정(禪定)에 이르는 가르침을 얻었

습니다. 즉 정신통일을 하여 고요한 경지에 도달하여 해탈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정(禪定)도 깨어나면 전과 똑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움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신통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신작용의 완전한 정지는 죽음에 이르러야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싯달타는 두 스승을 떠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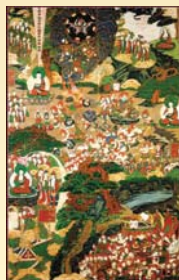
마)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가야(伽倻)지방의 니련선하(尼蓮禪河) 근처의苦行林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고타마는 맹렬한 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의 고행은 생천(生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자유를 얻기 위한 육체적 고행이었습니다. 이때 부왕인 정반왕은 태자를 염려하여 다섯 사람을 보냈는데 이들도 고타마와 함께 수행자가 되어 고행을 닦았습니다. 그러나 6년에 걸친 극심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는 육체적인 고행만으로는 정신적 자유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니련선하 강물에 들어가 오랜 고행으로 지치고 더러워진 몸을 씻고 나뭇가지를 잡고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때 마침 그 곁을 지나던 수자타로부터 유미죽을 공양 받고 기운을 회복한 뒤, 그늘이 있는 뽕팔라수(畢波羅樹) 나무 밑에서 묵동 스바스티카(吉祥)가 바친 부드러운 풀(吉祥草)을 깔고 “도를 이루지 않고는 결단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대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금강석보다 굳센 의지로 앉으신 자리라는 뜻으로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자리를 금강보좌(金剛寶座)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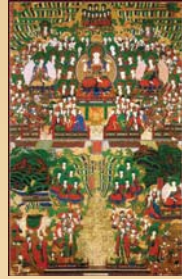
바)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

고타마가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으려 하자 가장 다급해진 자는 한 사람의 붓다가 출현함으로 해서 자신의 왕궁이 무너질 것을 염려한 마왕 파순(Mara)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세 딸을 보내 고타마를 유혹하려 했으나 실패하였고, 마군(魔軍)을 동원하여 수행을 막고자 했어도 실패한 마왕 파순은 자신이 직접 나섰지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아무런 방해 없이 깊은 선정에 들었고 모든 구속이 사라지자 세상의 이치가 확연히 드러나 부다(Buddha)가 되신 것입니다. 부처님이란 무상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이(正等覺者, 覺者)란 뜻이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현실의 고통을 해결하고 열반(涅槃)을 증득(證得)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때가 부처님이 35세 되던 해 음력 12월 8일 이었고, 후에 부처님이 성도하신 이 장소를 ‘붓다가야’라 불리게 되었으며, 뽕팔라수는 부처님이 그 나무 아래에서 깨달으셨다고 하여 깨달음이라는 말인 보리(菩提)를 따서 보리수(菩提樹)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 녹원전법상(鹿苑傳法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처님은 부다가야의 보리수를 떠나 처음으로 향한 곳은 바라나시의 녹아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최초로 다섯 수행자들에게 수행의 바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에게 그 당시 설해진 가르침이 사성제와 팔정도이며 이 설법을 석존이 행한 최초의 설법이라 하여 초전법륜(初轉法輪)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는 수행자는 지나친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 것도 옳지 않으므로 두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의 길을 가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네가지의 성스러운 진리인 사성제(四聖諦)를 가르쳐 다섯 수행자들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후 왕사성(王舍城)을 중심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퍼져나가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국왕과 대신, 부호, 평민, 천민 할 것 없이 각계 각층의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큰 감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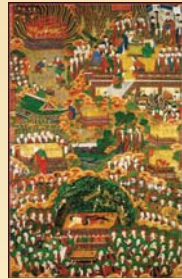


아)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

그러나 육체의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평등한 것입니다. 온 생애를 오로지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데에 바친 부처님께서도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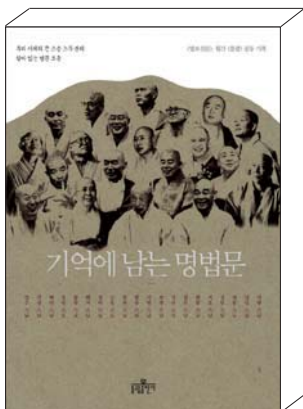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기 자신에 의지하라 진리에 의지하고, 진리를 스승으로 삼아라. 진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니 부지런히 정진하여 고통의 속박에서 벗어나라.”

라는 가르침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에서 대지를 붉게 물들이는 장엄한 황혼처럼 부처님은 80세의 위대한 생애를 마치십니다.



35세에 깨달음을 얻은 후, 녹아원에서의 첫설법을 시작으로 하여, 쿠시나가라에서 80세에 열반에 들기까지 부처님은 45년간 쉬지 않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와같이 길에서 태어나시어, 길에서 고뇌를 하시고, 길에서 수행하며, 길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길에서 사람의 갈 길을 가르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주무시며, 길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부처님은 바로 길에서 길을 인도하신 도사(導師)였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도(求道)와 성도(成道) 그리고 교화(教化)와 입멸(入滅)의 길을 걸으신 부처님의 생애는 참으로 위대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정신적인 깊이와 도덕적 위대성을 지니시고, 지혜와 자비를 갖추신 분으로서 인류에게 인간의 위대성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초월하여 부처님을 인류의 위대한 스승으로 존경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기억에 남는 명법문

-우리 시대의 큰 스승 스무 분의 살아 있는 법문 모음

ㅣ 출판사 불광출판사

우리 시대 큰 스승 스무 명의 법문

이 책은 ‘글’이 아니라 ‘말’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2009년과 2010년 초에 있었던 큰스님 스무 분의 법문을 ‘지상중계’한 것이다.

이 책의 ‘말’들은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서로 눈을 맞추고 호흡하면서 이뤄진 것들이다. 때문에 때로는 투박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래서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법석(法席)에 앉았던 스무 명의 큰스님들은 각각 ‘마음을 닦고’, ‘복을 짓고’, ‘소욕지족으로 살고’, ‘세상과 여유롭게 소통하자’고 이야기한다. 누구나 알만한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이런 이

야기들이 ‘덕담’이나 단순한 ‘반복’의 수준이 아니다. 큰스님들이 살아왔던 행적, 느껴왔던 감정 하나하나가 등장하면서 법문은 살아 숨쉬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렷이 남는다. 법문 속에는 바빠 움직이지만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세상, 급기야 뒷걸음치는 세상에 그리고 개인에 대한 질타가 있다. 이 질타가 추구하는 바는 뛰지 않고 걸어도 그리고 남을 밟지 않고 손잡고 가도 훨씬 많이 앞으로 갈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다. 이것이 불교의 현대적 가치임을 큰스님은 주장자를 내리치며 이야기 한다. 때론 ‘극락’, ‘정토’, ‘깨달음’ 등 조금 어려운 용어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큰스님들’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나와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친절히 안내한다.

이 책은 불교계 주간지인 <법보신문>, 그리고 월간 <불광>에 지난 2009년과 2010년 초에 실렸던 큰스님들의 법문을 정리한 것이다. 지난 1년간 많은 법문이 있었지만 그 중 일반인에게 곤혹스러운 선(禪)법문을 제외하고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법문을 위주로 선별했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독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 20편을 가려 엮었다. 때문에 독자들에게 무척 쉽고 친절하게 다가온다. 성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은 “절에 와서 복 지으려고 부처님께 실컷 절하고 나가다가 신에 흠이 묻었다고 남에게 욕하면 절한 복을 다 쏟아버리게 된다.”며 우선 내 발아래를 쳐다보고 하심(下心)하는 것이 불교의 첫걸음임을 강조한다.

혜인 스님(제주도 약천사 회주)은 “자비심은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다. 항상 사랑을 베풀고 잘못된 것을 너그럽게 이해하며 바른 길로 이끌고 큰 잘못까지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다. 정말 가난하고 못 배우고 불행하고 병들고 부족한 이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어루만져주고 다독겨주려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행동하나, 마음 한 번 써주는 것이 자비”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실린 법문들은 일상생활을 위한 법문들이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춘 해결책들도 하나씩 등장한다.

정락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은 각박한 현실을 극복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중 하나로 “고정 관념에 얽매이지 말고 그 반대편을 들여다보는 것”을 이야기 하고 보광 스님(정토사 주지)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세로 소욕지족(少欲知足)을 이야기 한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이익이 없는 말이라면 알라도 하지 않는 것” (청하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스스로 정직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현웅 스님, 육조사 주지)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스님들은 성수 스님(조계종 원로의원),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 혜인 스님(제주도 약천사 회주), 정련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 통광 스님(지리산 칠불사 회주), 혜거 스님(금강선원장), 정락 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 등 대부분 조계종의 명망 있는 원로급 스님들이다.

평소 스님들 알아리면 무거운 족비를 내려치고 알 듯 모를 듯한 선문답을 쏟아냈겠지만 일반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예화를 곁들이며 최대한 쉬운 말로 법문을 이어갔다.

어려운 경제, 각박한 세상사에 대비 같은 큰스님들의 법문을 만나보자.



선객 - 법광 스님의 선방이야기

저자 법광 | 출판사 한결음더

‘선객’이라는 말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스님, 법광

“웃음이 너무 천진스러워서.....”라는 신경림 시인의 말처럼, 책 표지에 실린 선운사 승가대학장 법광 스님의 모습은 정말 천진난만하다. 그런데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다. 책에 실린 한 편 한 편의 글을 읽다 보면, 얼굴에 그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불가(佛家)에서는 참선하는 스님들을 일컬어 ‘참선하는 나그네’, 즉 ‘선객(禪客)’이라고 한다. 왜 하필 나그네에 비유했을까? 어느 곳에도 매이거나 집착하지 말고 정진하라는 의미에서일 것이다.

법광 스님은 ‘선객’이라는 말에 너무 잘 어울리는 스님이다. 특하면 걸망 하나 지고 떠나길 좋아하고, 지는 노을에 아직도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스님인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스님은 수행 정진에도 최선을 다한다. 1998년 가을, 통도사에서 3주간에 걸쳐 수계 받는 스님들을 지도하던 때의 이야기를 보면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2km 남짓한 거리를 3보 1배로 가야 하는데, 선뜻 선봉으로 나서는 스님이 없자 어김없이 법광 스님이 앞장을 섰다. 무릎이 너무 아파 중단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 번 다잡고 거기에 표정관리(?)까지 하면서 끝까지 마쳤다.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아팠던 이유가, 다들 무릎에 두툼한 허감을 대고 했는데, 그 쉬운 도리를 혼자만 몰랐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미련하다 할 정도의 우직함이 있기에 스님의 웅만한 실수는 그저 재기발랄 정도로만 느껴진다.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스님들의 이야기가 더없이 친근하게!

일반 독자들이 궁금해하고 흥미있어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다. 본문 중에 「출가(出家)」라는 부분을 펼치면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온다.

..... 출가하기 3일 전엔 난데없이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결심한 터이기에 별다른 부담 없이 출가하는 날 오전에 읍내 찻집에서 만났다. 조그만 괴나리봇짐이 예사롭지 않았나 보다.

“그 짐이 무슨 짐인가요?” “출가하는 짐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조금은 멀리듯 이어지는 말이 들려왔다.

“다시 풀 수 없나요?” “장부의 결심인데 어찌 그리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나의 입술이 잠자리 날개처럼 떨렸다. 더 이상 밀고 당기는 말이 오가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가을비에 우산 하나를 받쳐 들고 읍내를 한 바퀴 돌았다. 시외버스에 먼저 보내면서 그쪽이 출가하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마치 영화관에서 영사가 돌고, 독자는 관객이 되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감동적인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이런 아련한 느낌의 글들이 이 책 속엔 수없이 많다. 거기에는 전문 사진작가 못지않은 혜관 스님의 선운사 주변 풍경사진까지 곁들여져 글의 분위기가 한층 더 살아난다.

저자_법광 스님

1985년 진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과 율원을 거쳐,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1기로 졸업했다. 해인사·송광사·봉암사 등에서 6년간 참선을 했고, 해인사·법주사 승가대학 강사를 거쳐 백양사 승가대학장을 역임했다. 2003년 전 교육원장 원산 스님으로부터 전강을 하고 ‘법광’이라는 호를 받았다. 현재 전라북도 고창의 선운사 승가대학장으로 있다.

충청남도 청양에서 태어나 장명초등학교, 장명중학교, 공주사대 부속고등학교와 남부대학교를 졸업했다.

불가의 먹거리 지혜

예로부터 불교세어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세 가지 덕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가지 덕이란 경연(硬鉛), 즉 가볍고 부드러울 것, 정결(淨潔), 즉 깨끗할 것. 그리고 여법작(如法作), 즉 법답게 만들어질 것을 가리킵니다. 풀어 말하면 경연은 섬유질을 많아 단단한 음식 물을 어떻게 입에 맞도록 부드럽게 조리할 것인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이야말로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정결은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만들 때 필수적인 요소지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절에서의 정결은 건강과 직결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법작이란 불법에 의거해 음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육류나 어류를 쓰지 않고 오신채를 넣지 않은 음식이라면 여법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쑥은 제철일 때 한꺼번에 많이 삶아서 한번에 먹을 양만큼 나눠 냉동실에 보관해 두면 좋습니다. 쑥개떡도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많이 써서 기름을 발라 쪄켜이 쑤아 냉동실에 보관하여 두고두고 먹습니다. 쑥개떡을 두껍게 빳을 때는 콩이나 팥을 떡 위에 심어 쪄도 별미입니다. 쑥은 채소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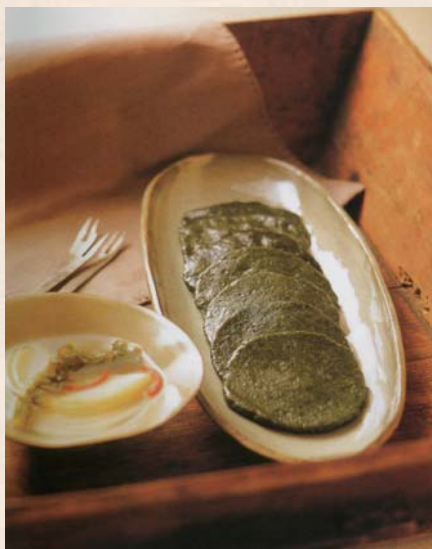
즙을 내어 마시기도 하는데, 소화흡수를 돕고, 간의 활동을 도우며,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특히 여자들에게 좋습니다. 쑥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특히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A가 많이 들어 있어 하루에 80그램만 먹으면 필요량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선재 스님

선재(善財)스님은 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의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여러 선방에서 정진했다. 94년 중앙승가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으며, 졸업논문으로 <사찰음식문화연구>를 발표했다.

이 논문을 통해 그는 경전을 근거로 하여 사찰음식의 특징과 유형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이야기한 바 있다. 그후 그는 생명에 위협을 받을 만큼 심한 간경화를 앓게 되었고, 건강을 되찾기 위한 방법으로 사찰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95년 3월부터 현재까지 불교TV <푸른 맛, 푸른요리>를 통해 사찰음식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때부터 보리사로 직접 찾아오고, 전화로 문의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사찰음식에 대한 상담을 해주게 된다. [선재스님의 사찰음식]은 바로 그의 이런 경험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졌다. 현재 그는 여주 보리사에 머물면서 사찰음식 연수생들을 지도하는 한편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가정학과 겸임교수이자 선재사찰음식연구원 원장으로 사찰음식을 지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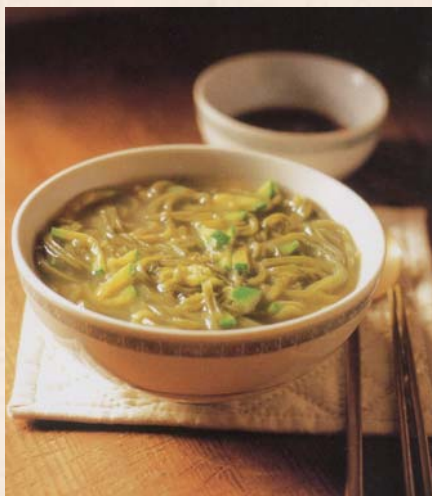


쭈개떡

재료 쭈 800g, 쌀 5컵, 식용유·참기름·소금 약간씩

1 어린 쭈은 끓는 소금물에 데쳐 불린 쌀과 함께 소금간해 뺀다. 쭈와 쌀의 양을 같게 하거나 쌀보다 쭈을 더 많아 넣어야 쭈의 향이 진하게 나면서 맛있다. 쭈가루에 물을 조금 부어 오래 치면 다음 적당한 크기로 떼어 손으로 탁탁 치면서 납작하게 빚는다.

2 쟁반에 식용유를 골고루 바른 뒤 납작하게 빚은 쭈개떡을 서로 겹치지 않게 올린다. 김이 오른 찜통에 쟁반째 얹어 찌 후 참기름을 발라가며 접시에 담는다.



쭈 칼국수

재료 밀가루 2컵, 쭈 50g, 애호박 1/2개, 다시마(20cm)1장, 표고버섯 4장, 무 200g, 마른 참죽 줄기 50g, 마른 고추 1개, 집간장 약간, 양념장(집간장 2큰술, 청·홍 고추 1/2개씩, 통깨·참기름 약간씩)

1 쭈은 믹서에 물과 소금을 조금씩 넣고 곱게 간다. 애호박은 채썬다. 국수의 양이 많을 때는 애호박을 곱게 채 썰어야 무르지 않는다.

2 물기가 없는 넓은 그릇에 밀가루와 같이놓은 쭈를 넣고 손으로 싹싹 비빈 후 밀가루에 물기가 골고루 퍼지면서 뭉쳐서 되직하게 반죽한다.

다. 끈기 있게 치면 후 비닐에 싸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두었다가 다시 치대어 반죽이 매끄러워지면 밀대를 이용해 최대한 얇게 민다. 반죽을 여러 겹으로 겹쳐 칼로 채썰어 밀가루를 고루 뿌려 면발이 서로 붙지 않게 헤쳐놓는다. 3 냄비에 물을 붓고 다시마, 표고버섯, 무, 마른 참죽 줄기를 넣고 끓인다. 끓으면 건더기는 모두 건져내고 집간장으로 간한다.

4 다시 끓으면 국수를 넣는다. 젖은 국수의 경우 바로 저으면 국수가 끊어지므로 한 번 끓은 후 채썬 호박을 넣고 젓가락으로 젓는다. 5 양념장을 만들어 쭈 칼국수와 함께 상에 낸다.

승랑 · 원측 · 혜초 · 도의 1



삼국시대 부교의 수준은 중국에 뒤지지 않았다. 고구려 출신 승랑 대사는 중국에 갔을 때 길장 대사로부터 보살이라 존경을 받을 정도였다.

나는 양무제의 스승이지만 내 스승은 승랑 대사라고.

흐흠...! 그렇다면 내가 황제의 할아버지 스승?



또 신라의 원측 법사는 유식학(唯識學)의 대가로서 현장 · 구기 대사와 함께 그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성과를 남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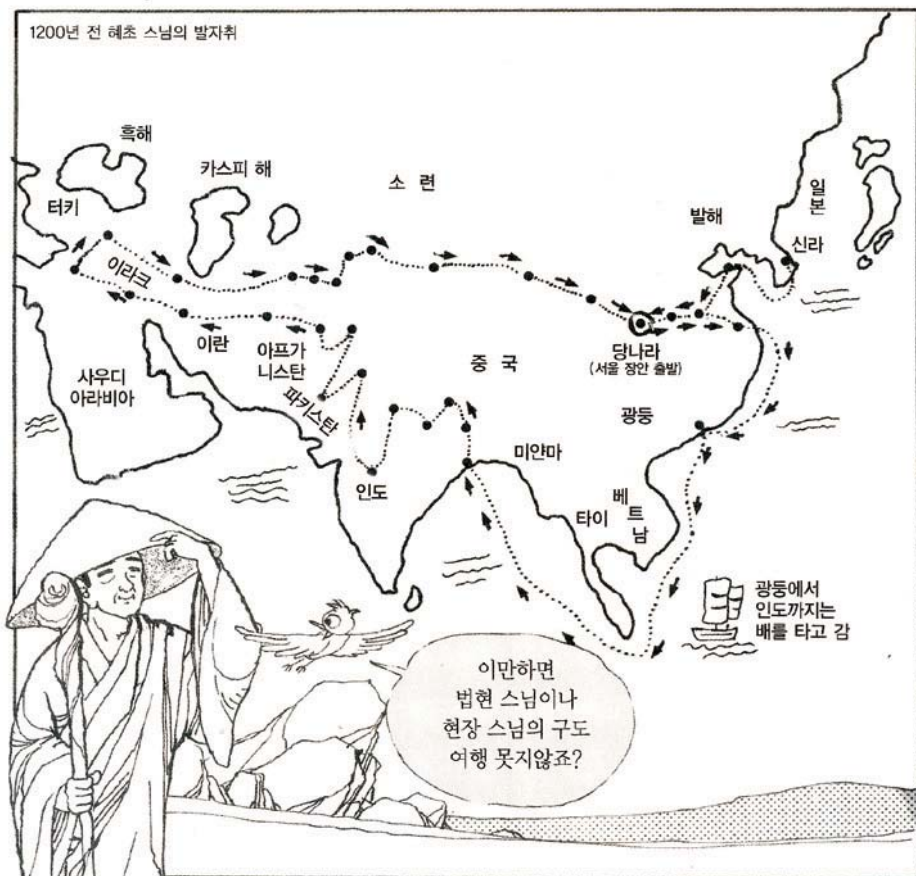
유식학은 불교의 심층 심리학이라 할 수 있죠.



혜초 스님은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겨 8세기경의 동양 문화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1200년 전 해초 스님의 발자취



알고 보면 우리가 세계에 자랑하는 석굴암 본존 불상의 아름다움이나 불국사의 석가탑, 다보탑의 빼어난 조형미 또한 이런 삼국시대 불교의 높은 경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자료제공 : 저자 김정민 | 그림 최병용 | 출판사 솔바람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화사한 봄빛을 담은 라넨쿨러스 예쁘게 꽃기

해맑은 노란색을 지닌 라넨쿨러스, 꽃송이를 담은 동그란 유리 꽃병에 소담스럽게 꽂고 줄기를 몇 번 꼬아서 풍성한 자연스러움을 표현했다.

연둣빛 작은 잎이 꽃을 감싸고 있는 논란 버플리얼름을 군데군데 라넨쿨러스의 노란빛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꽃이 핀 들판을 작은 꽃병에 옮겨 놓은 듯 자연의 멋이 느껴진다.



재료 노란색 라넨쿨러스, 버플리얼름, 둥근 모양 유리 꽃병, 꽃가위

- 1 공 모양의 둥근 유리병을 준비한다. 둥근 모양의 꽃병에는 꽃송이가 둥글게 생긴 꽃을 꽂으면 잘 어울린다.
- 2 라넨쿨러스는 여러 장의 꽃잎이 겹쳐서 핀 갈래꽃, 꽃병 높이의 2배 정도가 되는 길이로 잘랐을 때 가장 예쁘게 꽃을 수 있다. 꽃가위를 이용해 전부 같은 길이로 잘라 놓는다.
- 3 꽃병의 1/3~1/2 정도가 차도록 물을 붓고 라넨쿨러스를 자연스럽게 꽂는다.
- 4 버플리얼름도 라넨쿨러스와 비슷한 길이로 잘라 라넨쿨러스 사이사이에 꽂는다.
버플리얼름은 꽃 자체에도 연둣빛이 살짝 돌고, 자그마한 푸른 잎이 달려 있어 라넨쿨러스의 강렬한 느낌을 편안하게 바꾸어준다.
- 5 다 꽂으면 양손으로 꽃을 감싸 서서히 한쪽 방향으로 3~5번 정도 비틀어준다. 줄기가 한 방향으로 휘어져서 단정해지면서 전체적으로 공같이 동그스름한 모양으로 정돈되어 자연스럽게 둥근 유리병과 어울리는 꽃 장식으로 마무리 할 수 있다.



법왕사 소식

■ 신행단체 간담회

지난 2월 4일 법왕사 기도방에서 주지스님과 각 신행단체 간부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있었다. 주지스님께서서는 종단 신년 법어가 “깨달음과 사회”인 만큼 우리 법왕사에서 사회에 환원하고 화합 동참하는 의미로 매년 실행하고 있는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를 실천하자며 간부님들께 부탁하셨고 간부님들께서도 많은 고견을 말씀하셨다.

법왕사 법왕불교대학에서는 지난 2월 3일 주지스님께서 직강 하셨던 1기 금강경을 증강하고 모두 함께 경전반에서 각성큰스님이 강의하시는 유마경을 배우자고 하셨다.

■ 만불전(원불) 이운봉안법회 및 조성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따르겠다는 신심은 원력을 가지게 하고 그 원력으로 조성되는 부처님은 원불이라고 합니다.

삼천불전에 모셔져 있던 원불을 새롭게 불단이 조성된 3층 만불보전으로 지난 8일 이운하였습니다. 『불상조성 공덕경』에 부처님께서서는 만일 불법을 청정하게 믿는 선남자 선녀인이 깊이 믿고 즐거운 마음을 내어 불상을 조성하면 공덕이 광대하고 한량이 없어 헤아릴 수 없다. 이러한 사람은 비록 태어나더라도 빈궁한 집안에 태어나지 않으리니 이 사람은 항상 천륜성왕이나 큰 세력이 있는 종족의 집에 태어나거나 부귀가 자재하고 풍요하며 인간과 천상의 쾌락을 받지 않음이 없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원불을 모시지 못한 신도님들께서도 지금 1인 1불을 모시는 선업을 권하오니 선근을 심어 복된 가정을 영위하시고 일가권속이 평안 하시기를 부처님 전에 합장 축원 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766-3747, 766-3742

■ 동양학 13강 종강

지난 11월부터 13주 과정으로 시작되었던 본원스님의 동양학 강의를 2월 9일 종강 하였습니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주역 속의 음양오행을 배워 미래 삶을 펼쳐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산신기도 봉행

노천 산신단이 있는 법왕사에서는 가정의 안녕과 무고를 기원하는 산신기도가 지난 음력 1월 16일 산신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만히 회향하였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동참하신 사부대중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이 기도공덕이 도량의 평안과 불자님 모두에게 가피가 되어 가내 두루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윤불련 기도법회 봉행

관음기도 성취도량 법왕사에서는 지난 2월 23일 부터 25일까지 3일에 걸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불련 교육 및 법회를 여법하게 봉행하였습니다.



■ 신도전문교육기관 실무자연수 참석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는 법왕사 법왕불교대학은 지난 24일25일 이틀간 충남 공주 마곡사에 위치한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열린 조계종 포교원에서 주최한 불교대학 실무자 연수교육에 참석 하였습니다.

■ 정초 7일 화엄 신증기도 원만회향

한 해를 시작하는 정초, 부처님을 밋고 따르는 불자들을 재액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화엄성중님을 염호하며 정진하는 7일 신증기도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봉행되었습니다. 이 인연공덕으로 경인년 한해, 선근 공덕을 짓는 소중한 시간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경로당 일촌맺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 지역의 노인복지증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수성구 경로당 일촌 맺기 사업 『아부지 어우이요 저희 왔심데!』에 우리 법왕사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증진하고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기 위하여 상동 한돌경로당, 상동 제 2경로당, 상동 공원경로당 3곳과 협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연, 나눔의 기쁨을 함께하는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원인스님 졸업식

지난 2월 22일 원인스님의 동국대 학위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원인스님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4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불교TV에 현판식 및 달집태우기 행사 방영

불교TV 3월 2일자 방송에 우리 법왕사의 현판식 및 달집태우기 모습이 방영되었습니다.



■ 정월 선상방생법회 봉행

지난 2월 23일(음력 1월 10일) 법왕사에서는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천포에서 선상방생을 하고 적멸보궁 다솔사를 순례하는 선상방생 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나의 생명이 소중하다면 다른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생명경시 풍토 속에서 방생(放生)이 주는 의미는 우리에게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방생의 공덕에 대하여 인광대사는 열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생의 업이 소멸되어 하는 일마다 순조롭게 되며, 무병장수하며, 다산하고 여러 부처님이 기뻐하시어 재물이 번창하여 재난이 없어지고, 극락왕생 할 뿐 아니라, 악업이 소멸되어 사계절 평안하며, 선량한 마음이 생기어 고통이 없어진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공덕을 닦는 것을 자리아타라고 하듯, 부처님의 참진리를 실천한 이번 방생 법회를 통해 선근공덕을 지으신 모든 신도님들 열 가지 공덕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1 선상방생기도법회 모습 2 선상이동 중 갈매기와 함께 3,4 거북이 방생 5 소원지 들고 기도하는 모습
6 적멸보궁 다솔사 참배

■ 법왕불교대학 졸업식

지난 27일 만불보전에서 불교대학 기초교리반 1기 수료식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봉행되었습니다. 면학의 결실을 맺은 모든 법우님들께 축하를 드리며 1기 수료생의 신심증진과 탁마를 위하여 '보현회'라는 신행단체 이름을 주지스님께서 특별히 지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진 하시고 사중 곳곳에서 좋은 모습으로 법기를 기대해 봅니다.

발 원 문

나무 불.법.승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햇살 속에서 형형색색 폭죽처럼 터지는 봄꽃들을 보면서 세상사 진리 아닌 것이 없음을 봅니다.

두두물물 부처 아닌 것이 없이 순간순간이 극락이며 처처가 배움의 터임을 깊이 깨닫게 해 주신 스님들께 오채투지로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려운데 사람 몸 받고 맹구우목의 지중한 인연으로 만난 정법도량, 칠후 같은 어둠속에서 진리의 불 밝혀 주시고 배움의 기회를 만들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 법왕사 법왕불교대학과의 지중한 인연을 늘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1기 기초교리반 수료생 일동은 오늘을 계기로 다시 새로운 정진을 하려고 합니다. 기회의 땅 이 도량에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삶, 불국토가 되는 그 날까지 세세생생 보살도 행하는 정법제자 되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서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서가모니불



▪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지난 2월 28일 정월대보름을 맞이하여 법왕사 대광장에서 2,000여명의 많은 신도님들이 모이신 가운데 모든 분들의 원력이 담긴 소원지를 달집에 매달며 여법하게 개최되었습니다.

법왕 풍물예술단의 사물놀이로 시작된 식전행사에서는 우리의 춤과 노래, 섹스폰 연주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흥겨운 마당이 되었다. 또한 대적광전 현판과 주련 제막행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달집태우기 본 행사에서는 하늘 높이 타오르는 불꽃의 장관이 연출되어 행사의 절정을 연출하였다. 타오르는 달집을 위로 떠오른 대보름을 보면 소원을 비는 어르신의 바램처럼 대나무가 타며 내는 푹푹 소리에 잡귀들이 놀라 달아나고, 하늘 높이 타올라가는 재와 함께 액운도 함께 날아가길 기원했습니다. 불꽃이 막바지에 이르자 법왕 풍물예술단을 선두로 펼쳐진 강강술래를 통해 잊혀져 가는 우리의 멋을 즐기는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1



2



3



4



5



6

1 식전법회 2 법왕풍물예술단 사물놀이 공연 3 살풀이 공연 4 꽃춤 공연 5 초대가수 가요공연
6 많은 신도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1 달집을 뽕자로 쌓는 모습 2 소원지를 적어 달집에 다는 모습 3 소원을 빌며 초를 밝히는 모습
4 청심연지에 소원을 적은 유등이 뜬 모습 5 달집 뒤로 뜬 보름달 6 달집과 함께 한 주지스님의 모습

■ 법왕사 대적광적 현판식

법왕사 대적광적 현판이 현판식과 함께 그 모습을 뽐냈습니다. 또한 법왕사 주련도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찰에 가면 주련이 걸려있는데, 우리 법왕가족들도 우리 법왕사의 주련의 의미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지요.

報化非眞了妄緣 (보화비진요망연) : 보신화신은 마침내 허망한 인연이요

法身清淨廣無邊 (법신청정광무변) : 법신은 청정하여 광대무변 한지라

千江有水千江月 (천강유수천강월) : 천강에 물 있으니 천강에 달이요

萬里無雲萬里天 (만리무운만리천) : 만리에 구름 없으니 만리 하늘 이로다.

주련의 의미처럼 보신과 화신이 참이 아닌 거짓 인연임을 깨달아 법신의 맑고 끝이 없는 광대함을 볼 수 있는 법왕사 가족이길 바랍니다.



1



2



3

1 제막식 전 현판 2 제막식 후 현판 3 많은 사부대중이 함께 한 제막식 모습

조계종 신도증 발급안내

아직도 조계종 신도증이 없으시다고요? 저희 법왕사로 오세요.

신 규: 반명함판 사진 2매, 신도교무금 1만원

재발급(기존신도증소지자): 반명함판 사진 2매, 재발급수수료 1만원, 당해 년도 교무금 1만원

※ 신도 등록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후 종무소에 제출하시면 4주 이내 신도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비의 쌀 나누기 행사

“나눔이 있어 행복한 세상, 작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법왕사에서는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매년 실행되고 있는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 쌀 나누기에 따뜻한 마음을 모으고 있으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기다립니다.

산신기도 인등접수 안내

청자도자기로 만든 인등이
24시간 불을 밝혀 드립니다.

[가족당 · 사업체당] 호 룡 불 : 3만원
인등 1인 : 5천원



농협 702010-51-106490(법왕사)
대우은행 047-05-003698-6(법왕사)

각 재일별 기도 내용

신중기도 / 매월 음력 초하루 ~ 초사흘 / 문화관 3층(만불보전)
 원불기도 / 매월 음력 8일 / 3층
 신장기도 / 매월 음력 10일 / 3층
 인등기도 / 매월 음력 15일 / 3층
 산신기도 / 매월 음력 16일 / 야외산신단 오후 3시
 지장재일 / 매월 음력 18일 / 3층
 관음재일 / 매월 음력 24일 / 3층
 다라니기도 (신묘장구대다라니 108독)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반 / 3층
 거사림법회 / 매주 첫째, 셋째 목요일 오후 7시 / 3층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3층

법왕사 게시판

새법우 명단

서 구	김차연	황복자	김승환	김승리	김현정	양영순	김도형	김우진
중 구	박용은	류화경	박덕홍	박민서	류지만	임정희	류성원	
남 구	김상철	김정미	김성민	김진언	김보언	김민수	김수지	이환규 도보리심 이종화 이현주
	이우혁	이유정	조주삼	안성영	조풍현	최분옥		
달서구	전종철	김숙희	전무원	김희웅	이은숙	김혜진	김민지	박만용 유해순 박기보 박효정 박효숙
	최중훈	문은주	김현렬	문옥자	김나현	김태균	김성미	김여애 김명모
동 구	정여근	김정숙	정재한	정재우	정혜경			
수성구	이호창	민주현	이유진	이경민	최규철	김인경	김진력	이춘호 김희숙 이에진 강윤구 이명순
	강병주	강원양	박영훈	한미자	박재원	박윤영	배호택	김홍규 권혜진 김동현 이병훈 손수연
	이상엽	이재엽	허상현	주용숙	허성준	허성빈	진미자	황재석 김자영 신원순 홍경희 신동현
	신혜정	이승환	장경미	이예림				
북 구	이광일	강명원	이윤정	이윤아	이기금	박상일	박인규	구선자 박경미 박건호 김건 김계숙
	김치경	이정화	김소은	김미주				
기 타	신종수	박태숙	신나라	김병수	손정희	김정언	김준석	이선홍 김옥분 이준인 이경민 전우수
	최정이	전병혁	이영소	전성호	전지윤			

산신인등 접수 하신 분

60 이한석	61 이동수	62 추교홍	63 추준호	64 허민규	65 하회숙	66 신재만	67 정효상
68 정준상	69 이종찬	70 김성훈	71 김경훈	72 임재현	73 김우철	74 정보현	75 김태익
76 안선희	77 김성민	78 김현준	79 조준형	80 안현주	81 조명기	82 조수정	83 하만선
84 백경원	85 고승우	86 김종민	87 박대현	88 박호현	89 이태복	90 김은석	91 이상화
92 정연호	93 이현정	94 김동현	95 구나연	96 한지현	97 한재호	98 최정현	99 이기창
100 김상희	101 김기봉						

인등접수 하신 분

179 장정엽	445 이석담	446 김명자	579 이남권	580 이영실	597 임현근	536 반미진	330 권윤경
184 김재우	250 주풍현	330 권윤경	486 김태연	505 박상아	506 박근우	550 박경영	551 유명옥
553 박인정	552 박진오	561 우재현	459 장기석	517 박준영	591 이나희	592 이유진	632 이소원
633 이연주	634 이윤주	635 이동환	636 이나연	637 황희철	641 김진용	642 양혜정	643 김준혁
644 김수현	645 이호찬	646 김정숙	647 이현지	648 이상민	649 이지민		

범종불사 동참 하신 분

김승길 김승환 김승현 김승석 김고은 김희도 김영진 김태영 김우영 김민선 김갑진 이혜옥 김종학
이상욱 이상호 조전근 장경숙 조혜지 조재민 손애기② 구연진 정순희 구현서 구다은(설판)

방생법회 공양물 주신 분

지장회 신장회 관음회 거사림회 일심회 산신회 합창단 하경용 노수정 오경화 정안식 이복순 문지수
김순태 황래환 구실상화 김익균 신지원 이광진 이민형 이소원 김경란 김정석 이세정 박해진 김정미
이원석 허정현 배해동 강정선 이종광 이정자 삼성관광 항공주

원불봉안 하신 분

3027/이영미(관세음보살) 3028/ㄷ이태식(지장보살) 3029/김복섭(문수보살) 3030/김해인(보현보살)
 3031/이한석(문수보살) 3032/김상도(대일여래불) 3033/전연옥(관세음보살) 3034/최준혁(관세음보살)
 3035/김선우(관세음보살) 3036/김선민(대일여래불) 3037/정미화(관세음보살) 3038/박기보(관세음보살)
 3039/장소민(문수보살) 3040/ㄷ유영호(지장보살) 1093/박종길(석가모니불) 1094/박경준(대일여래불)
 1095/박연주(관세음보살) 3041/손홍락(석가모니불) 3042/손동영(문수보살) 3043/송동웅(보현보살)
 3044/ㄷ이복만(지장보살) 3045/이종순(관세음보살) 3046/하경순(관세음보살) 3047/이원석(대일여래불)
 3048/허정현(관세음보살) 3049/이종유(대일여래불) 3050/석양기(관세음보살) 3051/이명희(관세음보살)
 3052/김호택(석가모니불) 3053/조복남(관세음보살) 3054/민선희(보현보살) 3055/최성주(대일여래불)
 3056/이종매(관세음보살) 3057/최문교(문수보살) 3058/최문정(보현보살) 3059/권오경(관세음보살)
 3060/허수선(석가모니불) 3061/권혁진(아미타불) 3062/류영훈(아미타불) 3063/이상호(관세음보살)
 3064/문수명(석가모니불) 3065/구소영(관세음보살) 3066/문서린(약사여래불) 3067/함주연(문수보살)
 3068/임용우(관세음보살) 3069/ㄷ권혁태(지장보살) 3070/박말순(관세음보살) 3071/김기봉(관세음보살)
 3072/박정순(관세음보살) 3073/박임순(관세음보살) 3074/ㄷ조도제(아미타불中)
 3075/이금조(지장보살中) 3076/김동현(문수보살) 3077/최남구(관세음보살) 3078/최남익(관세음보살)

영가등 접수 하신 분

17. ㄷ경주최공태조영가 18. ㄷ밀양박공중수영가 ㄷ합천이공무장영가, ㄷ정씨학도영가,
 ㄷ정선전공병영영가, ㄷ경주김氏상순영가 ㄷ합천이공준호영가
 19. ㄷ청도김공기호영가 20. ㄷ진주강공봉조영가
 21. ㄷ평산신공해철영가, ㄷ인동장氏강수영가, ㄷ평산신공현순영가
 22. ㄷ김해김공병배영가, ㄷ밀양손氏정임영가, ㄷ김해김공종만영가, ㄷ연안이氏동희영가
 23. ㄷ고령박공지현영가, ㄷ고령박공전영영가 24. ㄷ청주정공태원영가
 25. ㄷ성주도공환용영가, ㄷ성주도공인기영가, ㄷ성산배氏병연영가, ㄷ성주도공해중영가,
 ㄷ수원백氏운현영가, ㄷ대록복위-증조모성산여영가
 26. ㄷ선산배공동은영가 27. ㄷ현풍공학문영가, ㄷ경주이氏순단영가

평생위패봉안

ㄷ영양남공규호영가 ㄷ평해황공병대영가 ㄷ경주김氏순자영가 ㄷ밀양박공창학영가 ㄷ김녕김공팔경영가
 ㄷ경주이氏판산영가 ㄷ성주도氏옥희영가 ㄷ밀양박공성출영가 ㄷ탐진최공성철영가 ㄷ연안이氏정순영가

일년등 접수 하신 분

203/곽춘자 204/조종구 205/박태남 206/임인한 207/임창호 208/최대일 209/김경환 210/강정선
 211/문백련화 212/오진환 213/박장식 214/류영하 215/김호택 216/서정옥 217/조대환
 218/이양순 219/박준형 220/변영구 221/추태숙 222/윤귀웅 223/박주식 224/도종신 225/장락상
 226/김우영 227/박충근 228/신용호 229/김화선 230/양영갑 231/양문갑 232/백삼택 233/김영일
 234/최춘자 235/김방우 236/차희근 237/이동출 238/박재근 239/정진호 240/곽영숙 240/곽영숙
 241/박종선 242/배인범 243/박영기 244/손태조 245/김재웅 246/도희태 247/전순옥 248/박재희
 249/박경래 250/백상우 251/박옥자 252/김성이 253/신종수 254/신진우 255/류해거 256/이영도
 257/안동수 258/홍순영 259/홍권표 260/홍정표 261/김종화

대적광전 현판 불사 하신 분

박대희 정효교 권영란 정지윤 정의윤 정정교 박신자 정수인 정의현 정수아

주련 불사 하신 분

장백련화 백대행심 박해진 강상우 강상훈

비로자나불(설판)봉안 하신 분

박상익 여은진 박범수

왕생극락 하옵소서

- 장우성거사님의 ㄸ업부 인동후인 장학송영가님의 100재가 2월1일에 있었습니다.
- 사공관거사님의 ㄸ업부 효령후인 사공석영가님의 설날제사가 2월14일에 있었습니다.
- 오현준법우님의 ㄸ자모 김해유인 김지실영가님의 설날제사가 2월14일에 있었습니다.
- 이종현거사님의 ㄸ아내 연안유인 김순애영가님의 기제사가 2월15일에 있었습니다
- 이병원거사님의 ㄸ업부 성주후인 이순도영가님의 기제사가 2월15일에 있었습니다.

알림 - 축하드립니다

- 2월 9일 동양학 강의 종강하였습니다.
- 2월 26일 사법고사생 조상천도재가 있었습니다.
- 2월 28일 김추석거사님의 장녀 김해주양의 결혼식이 크리스탈호텔에서 있었습니다.

2010년 2월 CMS접수 하신 분

초하루, 축원

김지연(2만원) 이범우(2만원) 나형진(2만원)
전태일(3만원) 진영덕(2만원) 이태현(2만원)
송애자(2만원) 이선미(2만원) 정연이(4만원)

초하루, 인등 탕화불상

이영희(4만원) 김주영(3만원)

평생위패

정광춘(5만원) 김종현(3만원) 황금순(2만원)

108석등

황미선(20만원) 이미경(10만원) 심명숙(5만원)
조경희(10만원) 이창형(3만원) 김명술(3만원)
윤경진(3만원) 박종길(1만원) 이정연(2만원)
조영자(6만원) 문영자(2만원) 현미숙(2만원)
조규인(3만원) 전숙희(10만원)

원불봉안

유혜정(2만원) 김명숙(3만원) 심규암(5만원)
이재윤(2만원) 김순희(2만원) 김점숙(2만원)
송화중(3만원) 이인애(2만원) 권장훈(1만원)
옥선혜(3만원) 강승구(4만원) 이갑선(1만원)

한평불사

신은영(5만원) 김의환(2만원) 조병화(10만원)
손인숙(5만원) 임희경(2만원) 전복량(2만원)
장순희(2만원) 류옥연(10만5천원) 서필희(1만원)
오형호(3만원)

인등

김영희(2만원) 김연자(1만원) 신인숙(5천원)
최동춘(1만원) 김경란(2만원) 이선영(5천원)
신정옥(4만5천원) 류윤형(5천원) 정순희(2만원)
황국희(1만5천원) 김분용(5만원) 권수정(5천원)
서금자(2만5천원) 홍경숙(1만원) 노수남(5만원)
전수진(1만원) 장옥주(1만원) 김수정(1만원)
김명선(2만5천원) 이경숙(5천원) 이경숙(5천원)
전재호(1만원) 이숙희(2만원) 황경란(1만5천원)
강춘희(2만원) 김경임(2만5천원) 배세중(2만원)
정분쇠(5천원) 최유자(1만5천원)

기타

최은상(3만원) 김재현(1만원) 주식순(5천원)
정영석(5만원) 이관수(10만원) 이종량(5만원)
민정기(2만원) 전광환(2만원)

감사합니다

● 사보 도움 주신 분

민기주(1,000부) 불교대학-오전반(100부)
거사림회(300부) 김해주(100부) 흥분회(300부)
사공관(100부) 권순득(50부) 이재학(50부)
불교대학-1기(40부) 최정심행(200부) 무애심(100부)
김순태(50부) 박경란(300부) KT진여회(200부)
류윤만(700부)

● 사보 구독 하신 분

김기춘 정현표 정태중 원선이 최양이 조준승 장재달

● 대중공양 주신 분

지장회 신장회 관음회 산신회 거사림회 합창단
일심회 이정상 전옥남 이기창 박휘 하경용 노수정
김경자 정영미 박병기 김태경 김경환 배해동 최옥남
박휘 유우석 정영웅 이원숙 정민수 이희동

● 공양미 보시하신 분

심해정 류주연 손정국 김형섭 이기창 임인한 정연국
정연석

● 떡공양 주신 분

권오훈 변미연 김수라 김옥출 김순태 황춘연 이세정
유우석 정선규 임복두 류윤만 이경숙 류희승 김기수
박분남 최문교 최남숙 박해진 박대희 김상희

● 후원품 주신 분

불교방송(공양미80kg) 최정일 홍승규 최이득 장정희
해덕숯불길비 최옥남 김경환 김태영 안지현 최정식
임인한 임창호 박해진

● 화환 주신 분

이화꽃집 정광춘 김태영 윤준옥 이재년 강춘희

● 벽돌보시 하신 분

● 불교대학졸업시 찬조물품 주신 분

백대행심 정안식 마하심 김영주

● 불교대학 물품보시 하신 분

최미화

● 돼지저금통 회향 하신 분

박본심행 구분문성 이수정

법왕사 후원 안내

※CMS 후원

- 자동 출금 이체방식(매달 통장에서 약정된 후원금 자동결제)
- 1구좌: 3,000원 이상
- 방 법: 법왕사 방문 및 전화신청

※저금통 후원

불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님의 도량을 여법하게 꾸며야 합니다. 준다는 마음도 없이 받는다는 마음도 없이 내가 기도할 법당을 내손으로 만들겠다는 발원으로 복지관 기도공간을 마련하는데 단 1원을 모으는 정성으로 돼지저금통 불사에 동참합니다.

- 방법: 법왕사방문 저금통을 수령해 채운 뒤 법왕사 복지관 방문전달
- 문의: 766-3742, 766-3747

법왕사 중흥불사 원만회향에 우리들의 신심과 정성을 모읍시다.

법왕사 개창 이래 오늘날까지 오로지 불사에 진력하여
복지관을 완공하고 막바지 불사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역사에 기리 남는 법왕사를
만드는데 작은 정성을 기다립니다.

하루에 천원씩, 천일 108만원(108통장) 많은 동참바랍니다.

동참문의 : 종무소 T. 053-766-3742

법왕 불교대학 문화강좌

문화강좌에 신도님을 모집 합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랍니다.

- **우담바라 합창단**(수요일 오후 2시)
정무시 선생님
- 대구·경북 불교음악인협회 회장
- **사물놀이반**(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법일 박성경 선생님
환경 문화 예술단 회장
- **꽃꽂이회**(금요일 오후 2시)
임상덕 선생님
- 민플라워 강사(경력20년)
- 법왕사 꽃꽂이회 지도 선생님
- **불화반**(매주 금요일 10시)
만희(영범)스님 - 세심사 주지
- **전통현대무용반**
김지연 선생님 - 이상화 무용단 단장
- **요리반**
황미선 선생님
- 수성케이블방송, 푸른방송,
TCN케이블방송,
“황미선의 행복한 밥상” 진행자
- **노래교실** 장인환 선생님
- **서예교실** 류영희 선생님
- **에어로빅** 현미숙 선생님
- **요가교실** 태광스님



1만5천부를 발행하는 《많고 아름다운사람들》은 광고효과와 열독률이 높습니다. 법우여러분께서 협찬하시는 광고는 제작비에 충당되며 더 좋은 소식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오니, 사업장을 열고 계시는 법왕법우님들이 많이 동참하시어 법왕사보의 발전에 역할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문의

많고 아름다운 사람들 법보시 받습니다.

사보구독

(신청·변경·취소)

문의: 053) 766-3742
766-3747

법보시계좌 (무통장입금) 예금주: 법왕사

C M S 039-10-001382

지로번호 3054150

대구은행 047-05-003698-6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불사안내

시주자 가족이름 새겨 드립니다.

법왕사에서는 불교종합복지관 준공을 앞두고 복지관광장에 최고의 석공예 장인들이 제작한 다양한 불교 조형물을 설치하여 불자들과 내방객들에게 즐거운 불거리를 제공하는 불교조각공원 조성불사를 추진합니다.

법왕사를 참배와 수행의 공간 뿐 아니라 불자가 아닌 분들도 언제나 찾아와 불교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불사에 수희동참하시고 이웃에도 권하여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증득하시고 구경성불하는 좋은 인연맺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법왕사 종무소 T. 766-3747, 766-3742

법왕사 12지신상 불사모연문

12지신은 12방위를 지키며, 각 시간을 나누어 불법을 수호하고 사찰을 수호하는 12신장입니다. 약사여래의 권속으로 약사여래 부처님의 12서원을 행하며, 모든 괴로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하며,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법왕사에서는 대구시민을 위한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12지신상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불사란 무연중생에게 새로운 인연을 맺어주며, 인연중생에게 복덕을 지어주게 하는 것입니다. 신심있으신 불자 여러분들도 이번 불사에 동참하시어 환난과 질병의 고통에 벗어나는 인연지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T. 766-3747, 766-3742



팔상성도특별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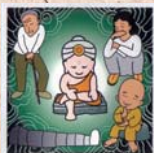


법왕사에서는 20여년간 매년 출가에서 열반까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되새겨 보는 팔상성도특별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고승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8일간 “정진주간”으로 정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며 기도, 수행에 들어가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1일차 | 도솔래의상-성정스님(청도 약사암주지)

2일차 | 비람강생상-명연스님(청도 죽림사주지)



3일차 | 사문유관상-선진스님(보현암주지)

4일차 | 유성출가상-명선스님(봉녕사승가대강사)

5일차 | 설산수도상-아용스님(능인학교교법사)

6일차 | 수하항마상-효탄스님(조계종문화부장)

7일차 | 녹원전법상-일장스님(유마사승가대학장)

8일차 | 쌍림열반상-세등스님(前운문사승가대강사)



• 일 시 : 3월 23일(화) ~ 3월 30일(화) 8일간 오전 11시

• 장 소 : 법왕사 문화관(3층 만불보전)

경인년 연등공양 (법당1년등) 접수

경인년 한해를 부처님의 광명으로 밝혀 줄

연등 공양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연등을 밝히는 것은 온 세상을 정화시키고 온갖

복덕과 성불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연등공양으로 경인년 한해를 밝고 활기차게 시작합시다.

○ 가족등: 10만원 ○ 영가등: 5만원 ○ 사업등: 100만원

※사업등에는 사업체이름을 넣어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 법왕사 종무소 T. 766-3747, 766-3742